

新 환율 전쟁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제332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40.40	(+17.40)
코스닥	681.97	(+5.67)
금리(국고채 3년)	1.65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28.00	(-10.00)

새벽을 여는 사람들 ② 서울메트로 신정차량 기지 검수부 김 중 철 씨

"소리만 들어도 상태 알죠"

AM 01 : 30 막차 들어오자 더 바빠진 검사요원

지하철은 보통 자정이 넘으면 운행이 끝난다. 밤의 침묵과 함께 모두가 잠드는 그때, 남들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행을 끝낸 지하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지하철의 파수꾼', 바로 서울메트로 검수부 직원들이다.

지난 22일 새벽 1시 반 무렵 찾은 서울메트로의 신정차량기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마치 한낮처럼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일하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는 2호선 차량 중 84대를 관리하고 있다. 지하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검수부는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 주업무다. 막차가 들어오고 첫차가 나갈 때까지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바로 검수부의 역할이다.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라 지하철에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이다. 또한 다른 노선에 비해 탑승객도 월등히 많아서 고장이 잦다. 그만큼 더 꼼꼼히 차량을 검수해야 한다.

신정차량기지 검수부는 각각 검수1부와 검수2부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는 1명의 부검수장과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총 4개의 조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운행한다. 차량기지 또한 쉬는 날이 없다. 다행히 최근 주간근무 1일과 야간근무 1일을 한 뒤 2일 휴무할 수 있는 '4일' 업무 체계가 자리잡아 근무 환경이 나아졌다. 하지만 근무 일정에 따라 하는 만큼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좀처럼 쉴 수 없다. 검수부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 아닌 고충이다.

야간근무는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다음날 오전 9시에 끝난다. 본격적인 근무는 차량이 기지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자정을 기점으로 검수부의 발길은 바빠진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검수부는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진행하는 '도착검사', 3일에 한 번 진행하는 '일상검사', 그리고 2개월에 한 번 하는 '월상검사'를 한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에서 검수부 직원이 지하철 차량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차량 안전 위해 밤낮 없이 점검 즐기며 일하다보니 어느덧 30년 의지할 동료 있어 힘든 줄 몰라"



김중철 부검수장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벽 1~2시까지 차량 점검이 끝나면 직원들은 2시간 남짓 수면을 취한 뒤 새벽 3~4시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 첫차가 출발하기 전 다시 한 번 더 차량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검수를 마친 차량은 기관사에게 건네진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워 작업을 마친 뒤에야 주간 근무조와 교대를 하고 퇴근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에 9시 출근, 6시 퇴근이 익숙한 보통의 직장인과 비교하면 힘든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중철(57) 부검수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일하면서 즐거운 순간이 더 많다"며 웃었다. 그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즐기자는 마인드로 서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1985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올해로 30년째 근무 중인 김 부검수장은 "야간에 근무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천직이라 생각하며 일하다 보니 30년을 맞게 됐다"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다. 보람도 크다. 그는 "어렵게 고장을 찾아서 수리를 하면 희열을 느낀다. 그럴 때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힘든 근무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동료와의 우정이다. 김 부검수장은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파트보다 우정이 돈독하다"며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취미도 공유하며 챙겨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신정차량기지는 새벽에도 웃음과 활기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에도 지하철을 타면 소리만 들어도 '이 차량은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끼리 놀 때도 지하철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죠. '지하철의 파수꾼'이라고 할까요? (웃음) 힘들어도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즐겁게 일하는 비결입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어린이집 28~30일 휴원? "우리 아이, 어디 맡기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주 소속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직장 휴가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단휴원' 기간에 연차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볼지, 아니면 해당 기간 아이를 맡아줄 친인척 알아보기 등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해 사실상 집단 휴원을 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된 것으로 반영됐다"며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 중 영아반의 보육료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하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편성 놓고 중앙-지방 힘겨루기 복지부 "애들 볼모로한 투쟁 삼가야"

복지부는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합회측을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엄단 방침을 밝히며 민간어린이집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회 측에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 필요성을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약속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 대거 문을 닫는 집단 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집단 연차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맞벌이를 하는 상당수 학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직장인 박경수씨는 "어린이집 휴원한다고 난리던데 제 경우는 부부가 모두 지방 출신이라 딱히 아이를 맡길 데도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해야 할지 심란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시에 사는 맞벌이 주부 김경자씨는 "연차를 써야할 거 같은데 애꿎은 부모와 어린아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fun@

배짱장사 애플… 출고가↑ 지원금↓

지난 23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6S는 전작에 비해 가격대가 높이 측정됐다. 또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탓에 구매 부담도 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아이폰6S의 출고가는 16GB 모델 86만9000원, 64GB 모델 99만9900원, 128GB 모델 113만800원이다. 아이폰6S플러스의 경우 16GB 모델 99만9900원, 64GB 모델 113만800원, 128GB 모델 126만1700원이다. 1년 전 출시된 전작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출고가보다 각각 8만원 가량 올랐다.

이처럼 출고가가 높은데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낮은 편이다. 아이폰6S(전모델) 기준 3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3만~4만원, 6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6만~8만원, 10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12만~14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이폰 구매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원보다 훨씬 낮은 최대 13만원 선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는 경쟁 모델의 지원금이 최대 3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The price of gold is going up again.

다시 뛰는 금값



Gold funds are receiving attentions again since there is a continuous uncertainty about global financial market.

Because the rate of return for some other funds per month is about 6%.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s planning to delay increasing interest rate with a week left befor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 that decides whether to increase the base interest rate. Chinese economy is also unstabl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China is only 6.8% in the third quarter this year.

As the market becomes unstable, demands are formed in the belief that "The only thing that we can count on is gold".

The most common gold investment method for ordinary people is gold funds.

Normally, the time that the price of gold turns into "the actual expensive gold price" is when △ uncertainty increases and risk free asset becomes popular △ demand increases △ inflation pressure grows △ the currency value(dollor) decreases.

According to Fnguide, the financial data company, the rate of return of 11 gold funds that cost more than a billion is 6.08% for a month.This is a rapid growth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ate of return is 8.87% for the past year.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값이 오르자 금펀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펀드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6%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1주일 앞두고 금리 인상 지연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중국 경제도 불안하다. 중국의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6.9%에 머물렀다.

시장이 불안해지자 '역시 믿을 것은 금뿐'이라는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금 투자법은 단연 금펀드다. 보통 금값이 '금값'이 되는 시기는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될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날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때 △통화가치(통상 달러값)가 하락할 때 등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11개 금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6.08%를 기록했다.

1년 새 8.87% 빠진 점을 볼 때 높은 반등세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애플 'iPhone 6s'의 생산을 위탁 받은 타이완업체 **'페가트론'**의 상하이 공장에서 월 36만원에 12시간 시프트 근무가 이뤄져 노동착취가 심각하다는 인권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 3년 5개월여만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2일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

▲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에 관여한 **우에무라 다카시**(57)씨가 대학강사직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 **미 항공우주국**(NASA)는 2020년대에 달 궤도에서 비행사가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30년대에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계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정치·사회



▲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 동영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주 소속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직장을 휴가내야하는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폐조직 손상으로 폐이식 치료를 받아온 152번 환자가상태가 악화돼 25일 새벽 1시 52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했다.



자작나무 숲의 가을 25일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가을을 즐기려 많은 사람이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재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데 이어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도 기부 참여를 결정하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하르 인수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4분기 신차 출시와 함께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분기 성적표를 받아 든 현대자동차그룹의 형제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희비는 엇갈렸다. '동생'격인 기아차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반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신한금융**이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7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섰다. 이는 KB금융(4071억원)과 하나금융(2534억원)의 3분기 실적을 더한 것보다 큰 규모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기술보증기금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체육대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한계기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지원하고 살릴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렸다. 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간에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린 곳은 수협·우리·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은행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 이하의 인하폭만을 기록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70년만에 처음으로 열흘간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2세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집무실 관할권을 둔 공방이 장고 보고 중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 **동대문 면세점 유치**를 위해 SK네트웍스와 두산이 '상생'을 앞세운 전략을 내세웠다. SK네트웍스는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5%까지 끌어올리고 지역상인을 위해 1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산은 기존 두타 근무 인력의 고용승계와 함께 면세점 유치시 면세점 이익의 10~20%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 칭따오 맥주, 이금기굴소스, 비첸향 육포 등 **차이나푸드**의 공세가 거세다. 익숙한 동양의 맛과 중국 현지의 이국적인 맛을 앞세워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하며 칭따오맥주는 맥주판매량 10위권에 올랐다. 이금기굴소스도 연평균 2배 가량 매출이 늘었다.

中 금리인하에 더 강해진 달러… 새우등 원화

新환율전쟁 <上>

추가양적완화·부양책 거론
통화정책·시장개입 중요해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통화 가치 평가 절하를 하지 않을 것을 재차 확인한다." (11월10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 선언문)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공염불이 돼 가는 모양새다. 각국의 '돈 풀기'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린 데 이어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흐름을 되돌릴 만한 명분도,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다.

◆고래 싸움에 낀 새우 될라

지난 2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35%로 조정하고 적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낮췄다.

기업의 여신 접근성을 늘려 기업 실적의 하락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채권·주식 등 금융시장이 앞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 회복세에 따라 제로(0) 금리를 벗어나려다 일단 유보했다. 금리 인상 후 전개될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도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는 오는 12월3일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적 완화(QE)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금리(ECB 예금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6명 가운데 17명이 이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행동'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로 2년 4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JP모건 체이스의 마사미치 아다치 연구원은 "물가 하락은 일본은행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대만,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과 노르웨이도 기준금리를 내렸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잇따르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3.3%)와 내년(3.8%)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달 중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낮춘 5.8%로 제시했다. 이는 2001년의 성장률(4.9%)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시 가열되는 환율전쟁, 한국도 동참하나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행은 환율정책을 위해 금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각도에서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인위적으로 더 내려도 큰 효과가 나기 어렵다. 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에 몰릴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 맞서 환율 전쟁에 뛰어들어봐야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자칫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양적완화 카드까지 쓰는 마당에 한국이 점잖을 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달라졌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등에 업고 강한달러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줄 달러 강세 현상을 반겨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달러 외 모든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국가보다 더 통화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조작국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한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강세를 저지하고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아이폰6S, 지원금 보다 '요금할인'이 유리

6만원 요금제 선택 시
약 30만원 할인 받아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의 비싼 출고가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보다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아이폰6S의 출고가는 86만9000~113만800원이다. 아이폰6S플러스의 경우 99만9900~126만1700원이다. 1년 전 출시된 전작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보다 각각 8만원 가량 올랐다. 특정 국가,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락폰 역시 7만~10만 원 비싸졌다.

이를 두고, 작년 '아이폰6' 출시 당시보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출고가에 비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낮은 편이다. 아이폰6S(전모델) 기준 3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3만~4만원, 6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6만~8만원, 10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12만~14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해봤자 4000원에서 최대 2만원 정도의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마니아층이 탄탄해 고정 수요가 있는 만큼 보조금과 무관하게 살 사람은 다 산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아이폰6가 나올 때에는 LG유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아이폰 출시에 가세하며 시장이 과열된 탓에 3사가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6에 지금도 지원금이 많이 실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통사로서는 아이폰6s에 아이폰6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이폰6S 시리즈 출고가는 올라가고, 보조금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다보니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다만 '요금할인20%'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요금할인20%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이통사에 내는 통신비는 8만원이 된다. 2년 약정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폰6S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20%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들어 출고가 99만9900원의 아이폰6S(64GB) 기준으로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으로 90만~92만원에서 아이폰6S를 구입할 수 있지만, 20% 요금할인 선택 시 2년간 31만원의 할인을 받아 사실상 68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된다.

요금할인20% 제도는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으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 시 위약금이 존재한다. 이통사별 약정기준, 이용기간과 산정율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산정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사 별로 산정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사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사재터는 회장들…재계 '청년펀드' 가입 확산

정몽구 회장 150억 기부에 현대차 임직원 50억 쾌척 SK·LG·롯데 릴레이 동참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재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데 이어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도 기부 참여를 결정하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어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은 150억원의 사재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 그룹 임원진도 50억원을 쾌척하며 뜻을 모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공감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에 따라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2일 250억원을 기부했다.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기부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사장단과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 50억원을 기부했다.

삼성 사장단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 공감해 기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삼성과 현대차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내놓자 SK, 한화, LG, 롯데, 코오롱, 효성 등의 주요 그룹들도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기와 금액을 조율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익차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기부금액과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G그룹도 참여시기를 놓고 조율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규모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화, 두산, KT, CJ, 롯데, 신세계 등도 아직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재계의 잇단 릴레이 기부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 등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 만큼, 다른 대기업들도 내부적으로 기부 논의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목적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 사용되며 청년취업기회 확대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지난 19일 청년희망펀드 운영을 책임질 청년희망재단이 공식 설립되면서 재계에서 동참 분위기가 조성됐다. 청년희망재단의 이사장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임됐다. 황 신임 이사장은 벤처 기업가로 벤처기업협회장을 역임했고,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청년 창업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에도 헌신하고 있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장연국 대변인


육동인 춘추관장

靑 신임 대변인 정연국 춘추관장엔 육동인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54) 전 MBC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민경욱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직한 이후 20일째 공석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대변인은 MBC에서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아왔다.

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는 게 없지만, 많이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 전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도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역시 공석이던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춘추관장 자리는 전광삼 전 관장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달 22일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후 33일째 비어있었다.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육 신임 관장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 금융·사회부장을 지냈으다.

/연미란 기자 actor@

고학력 男청년 체감실업률 27.9%… 통계의 2.3배

한국경제연구원 1~8월 전체 평균 22.4% 전문대 女 체감 17% 최저

우리나라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7.9%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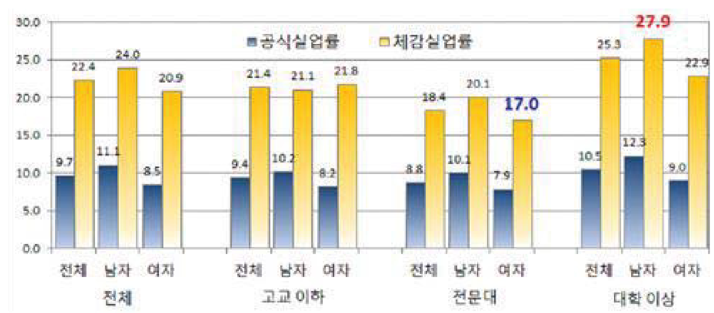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청년실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올해 1~8월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실질실업률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인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식 실업률(9.7%)의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학력별·성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2015년 1~8월 평균 단위 : %

반면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을 보면, 대학교(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 포함) 이상이 25.3%,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 순이었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청년 체감실업률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들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의 유진성 연구위원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이 의결됐지만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는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정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등에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은미기자

신격호 총괄회장, 열흘간 경영보고 못 받아

형제간 공방이 중단 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이 열흘간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이에 둔 형제간의 공방이 보고 중단의 원인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롯데를 설립한 이래 이처럼 장기간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롯데 창업 70년 만에 처음이다.

롯데그룹 측도 사실상 보고가 중단됐음을 인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후 롯데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경영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6일 이전까지 신 총괄회장은 고령임에도 불구 직접 그룹내 계열사의 업무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신 총괄회장은 매일 오후 3~5시 사이에 그룹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업무 진행 현황 등을 직접 보고 받고 질의하며 경영 상황을 파악해왔다.

보고가 열흘 가까이 중단되자 신 총괄회장은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동반 외출에 나섰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측은 기존 비서실 임원의 해임과 재선임을 통보하며 롯데그룹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 신 전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그룹 손실을 해임 이유라고 맞서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비급여 의료비 연평균 10.2%↑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기자 fun@

공화당 집토끼 반란… 트럼프 돌풍 이유 있다

<백인 저소득 노동자>

2016 미국 대선 엿보기 ①

트럼프 '히스패닉 막말'에 환호
친한파 엘리트 루비오 맞상대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1일 아이오와 주 벌링턴 유세에서 연설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모를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대중잡지인 베니티페어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온라인에 올린 대선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베니티페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간 양자대결을 전제로 주별로 우열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중들에게 이래도 트럼프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볼거냐는 식이다. 트럼프 돌풍은 지난 7월 이래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잠깐 불다 사라질 바람이려니 하던 전문가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이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A. 갤스턴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의 27%와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파 중 50%가 공화당을 싫어한다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며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비정치인 후보 3명은 장점과 매력이 무엇이든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소속당과 지도자에게 갖는 불만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분석했다. 비정치인 후보 3명이란 부동산 갑부인 트럼프, 유명 외과의사 출신의 벤 카슨, CEO 출신의 칼리 피오리나 등이다. 그의 글은 트럼프 열풍이 2개월째를 맞이하던 8월 26일 올라왔다. 당시 세 사람의 지지율 합계는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후 피오리나가 약진하면서 55%를 넘어섰다. 피오리나의 지지세가 꺾이고 트럼프와 카슨 간 2파전이 치열한 지금도 50% 선을 넘고 있다. 이는 공화당 집토끼의 과반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다.

카슨이나 피오리나는 트럼프 돌풍에 올라타며 컸다. 피오리나의 반짝 상승세는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싸워 얻은 성과였다. 카슨의 부상 역시 의사 특유의 냉정한 연설 스타일로 트럼프와 대비된 결과였다. 결국 공화당 집토끼의 반란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트럼프의 인기 비결을 알면 공화당 집토끼의 반란 이유와 주체를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히스패닉계 등 이주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대변하면서 인기몰이를 해 왔다. 히스패닉계 등 소수자들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지지기반이다. 2008년 대선 승리 이후 오바마는 갖가지 지원정책으로 이들의 지지에 보답했다. 히스패닉계 등에 밀려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으로서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다. 이들은 그 불만을 공화당에 쏟아 붓고 있다. 공화당이 온건노선을 표방,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9년 부상하기 시작한 공화당 내 초강경 그룹 '티파티'와는 또 다른 방식의 반란이다.

티파티는 현재 자당 소속 하원의장을 밀어낼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화당 온건파를 거칠게 공격하고 있지만 역시 이들도 당에 기반을 가진 이른바 당의 엘리트들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반란은 바로 이들 당내 엘리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돌풍 초기에 공화당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분열 탓을 하며 결국 승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은 무려 16명의 후보들이 난립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가 분열한 결과였다. 온건파에서만 젭 부시, 마르코 루비오, 존 케이식, 크리스 크리스티 등이 나섰고, 티파티에서도 스캇 워커(중도 하차), 테드 크루즈 등이 대선에 발을 담갔다. 이들은 나머지 50% 미만의 지지를 나눠 가졌다. 당초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부시가 몰락하면서 이들은 현재의 불리한 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3일 아이오와 주 공화당 코커스 여론조사에서 부시의 지지율은 5%에 머물렀고, 루비오는 9%, 크루즈는 10%였다. 이전의 다른 여론조사에서 루비오와 크루즈의 지지율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불리한 구도 자체는 그대로다.

공화당 온건파들이 친한파로 유명한 루비오 진영으로 집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비오 대세론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노선을 둘러싼 공화당 엘리트 내분이 점입가경이란 게 문제다. 원내 티파티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폴 라이언을 하원의장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내 온건파가 이들에게 눌린 상태에서 루비오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크루즈가 물러나더라도 티파티 지지자들의 표가 루비오에게 향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등 비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티파트 성향의 유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엘리트 세력과 '슈퍼 리치'(공화당 자금줄)로 대표되는 금력이 비정치인 후보에게 넘기 힘든 벽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카슨의 경우 현재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완주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다. 카슨은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베니티페어는 "트럼프가 아직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자금력이다. 그는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력을 자랑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투입하지 않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 韓·日은 2일 개최 유력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 3년 5개월여만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1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다. 25일 현재 한국에서도 조만간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이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미뤄 온 3국간 협력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2012년 5월 회담 이후 독도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다. 사실상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두고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한 명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 시작해 이번에 6회째를 맞는 회담의 의장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의장국 신분으로 아베 총리를 부르면 일단 명분이 선다. 이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일본 일각의 왜곡과는 달리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해 왔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두 동맹국이 과거사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 왔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상태다.

24일 NHK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담 다음날인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국과 이를 거부한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조율과정의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5자회동’ 빈손… 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 우려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 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이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오른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김태촌 양아들’로 본 21세기 조폭 생존법

납치강도 → 기업사냥 → 원정도박 갈수록 진화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단순 범죄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 폭력조직이 어떻게 적응하며 변신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2013년 1월 사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가 언제 범서방파에 발을 들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찰이 관리하는 조직원 명단에도 없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함께 움직이며 행동대원 노릇을 시작한 것으로 검경은 파악하고 있다.

2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대 중반에 이미 선배 조폭과 함께 납치강도 행각을 벌인 경력이 있다. ‘광주 동아파’ 소속 이모씨는 1997년 고향 선배인 사업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김씨를 끌어들였다. 당시 24세였다.

처음에는 김씨를 ‘대포차 구입 전문’으로 내세워 “1억2000만원짜리 신형 벤츠승용차를 싸게 마련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1999년 4월 이씨가 고향 선배를 납치해 2억6000만원을 뜯어내는 데도 가담했다. 전형적인 ‘갈취형 조폭’이었다. 이 범행으로 김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여년이 지난 2011년 김씨는 사업가로 변신했다. 2000년대 들어 ‘3세대 조폭’의 새 사업영역으로 떠오른 ‘기업사냥’에 발을 들인 것이다.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끌어들여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262억원에 인수했다. 2013년 1월11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얻은 지 나흘 만에 회삿돈 209억원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인수대금을 갚는 데 썼다. S사는 결국 같은해 7월 28일 상장폐지됐다.

김씨는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도 범서방파의 명맥을 잇기 위해 1년 가까이 의식없는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던 김태촌의 수발을 들었다. 김태촌이 숨졌을 때는 부고장을 직접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S사에서 손을 턴 뒤 2013년 5월 사업무대를 동남아 카지노로 넓혔다.

범서방파 계열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39)씨가 2년 전 마카오로 건너가 기반을 다져놓은 터였다. 정운호(50·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미 이씨의 단골이었다.

카지노 VIP룸을 빌려 한국인 원정도박꾼을 유치해 판돈의 1.24%를 챙기던 이씨는 김씨의 합류를 계기로 판을 키웠다. 판돈의 일부인 ‘롤링수익’ 뿐만 아니라 도박꾼이 잃은 금액, 이른바 ‘루징금액’의 40%를 챙기는 ‘쉐어징킷’ 형태로 영업방식을 바꿨다.

김씨는 이런 형태의 카지노룸인 일명 ‘경성방’을 설립하는 데 3억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얻었다. 마카오를 찾은 도박꾼들에게 한화를 홍콩달러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외환거래로 부수입을 올렸다.

검찰이 조폭수사의 패러다임을 갈취·폭력범죄에서 합법을 가장한 금융·기업범죄로 바꾼 지는 오래다. 동남아 카지노에 국내 조폭이 대거 진출하며 자금원을 확보한 사실은 김씨의 S사 자금 횡령이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3월24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정도박 수사의 단서를 찾았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도박빚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나 문서 형태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검찰이 동남아에 원정도박 브로커로 진출한 조폭을 파악한 결과 범서방파 뿐만 아니라 ‘학동파’ ‘영산포파’ ‘청주파라다이스파’ 등 계파를 초월해 새 사업영역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별로 카지노를 나눠 관리하는 식으로 상호 공존했다.

그러나 도박빚을 받아낼 때는 협박·공갈 등 ‘구세대 조폭’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수금에 폭력조직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폭의 자금원을 밝히는 측면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fun@


지난 1월 경기도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 요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릎 꿇어” 갑질 기승

정부,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 동영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사과토록 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미란 기자 actor@

www.komak.or.kr

2015 자라섬 막걸리 FESTIVAL

JARASUM **MAKGEOLLI FESTIVAL 2015**

10.29 - 11.1 11:00~22:00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

주최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 Korean Makgeolli Association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가평군



막걸리 가든

대형 돔텐트(3,000m²) 내 막걸리 주점 운영

공연프로그램

노라조, 울랄라세션, 코요테 등 40개 팀

전시프로그램

2015 우리술 품평회 및 해외 주류품평회 입상작 등 전시,
찾아가는 양조장 및 전통주 갤러리 등 소개

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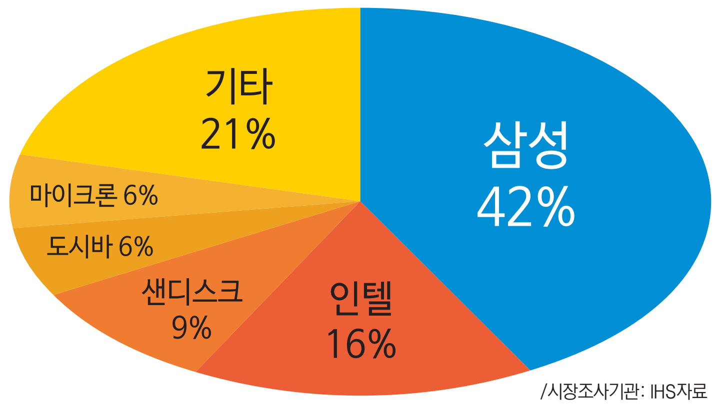
팔도막걸리 시음, 막걸리 빚기, 소주 내리기,
외국인이 빚은 막걸리 시음 콘테스트 등

韓-中 반도체전쟁, 1차 격전지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中 칭화유니그룹, 샌디스크 우회인수로 시장 진출
도시바와 제휴 판도엎을 잠재력… 한국 '수성' 비상

<SSD 시장 점유율>



/시장조사기관: IHS자료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시장의 미래로 평가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가 1차 접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1위 기업인 미국 반도체 회사 웨스턴디지털은 샌디스크를 190억 달러(약 21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웨스턴디지털의 최대 주주는 중국 칭화유니그룹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이달 초 웨스턴디지털의 지분 15%를 사들였다. 결국 샌디스크가 칭화유니그룹의 손자회사가 된 셈이다.

샌디스크는 모바일 기기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회사다. 올해 2·4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14.8%로 세계 4위다. 최근 컴퓨터나 데이터센터로 저장장치 공급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샌디스크 우회 인수로 메모리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최근까지도 D램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이 메모리 진출을 노리는 건 연간 2300억 달러(약 270조원)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서다. 반도체는 지난 2013년 원유를 제치고 중국의 1위 수입품이 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위안(약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해외 반도체 업체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웨스턴디지털을 통한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SD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SD 시장은 올해 130억 달러 규모로 2019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HDD 시장을 추월할 전망이다.

조사기관 IHS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S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42%로 2위 인텔(16%)을 2.6배 차이로 월등히 앞서고 있다. 샌디스크는 9%로 3위이고 마이크론과 도시바가 각각 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샌디스크는 일본 도시바와 공동 팹(Fab·반도체 라인)을 갖고 있고, 낸드플래시의 원조 격인 도시바와 15년간 파트너십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판도를 전환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간 웨스턴디지털은 플래시 스토리지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샌디스크 이전에도 STEC, 벨로비트, 스카이에라 등 기술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했다. 샌디스크도 플래시소프트, 스마트스토리지 등의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전수 받는 등 SSD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1200억 위안(2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배경에도 세계 최대 SSD 수요국으로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은 SSD를 구성하는 메모리인 낸드플래시 세계 수요의 30%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칭화유니그룹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샌디스크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LG전자,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후원

LG전자가 후원하는 '2015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개막했다.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는 LG전자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이 함께 주최하는 전국여자야구대회로, 올해가 4번째다.

지난 24일 경기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한국여자야구연맹 정진구 회장,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 박태수 이천시 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배 여자야구대회에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왼쪽)이 시구를 하고 있다. /LG전자

최상규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매해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를 치르면서 한국 여자야구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한국 여자 야구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14세 중학생부터 50세 가정주부까지 40개팀 82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총 40경기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정은미 기자

LG복지재단

순직한 故 이기태 경감에 LG 의인상·위로금 전달

LG복지재단은 '경찰의 날 70주년'이었던 지난 21일 장애 청소년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순직한 고(故) 이기태 경감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소속이었던 고 이기태 경감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김모 군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철길로 뛰어든 김군을 끝까지 구하려다 달려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LG복지재단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철한 책임감으로 임하다 순직한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슬픔이 큰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을 담아 고 이기태 경감을 LG 의인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LG 의인상'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구본무 회장과 LG 차원의 뜻에 따라 LG복지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가 가입자 100만 명 달성을 비롯해 '10·100·1000' 기록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20일 공식 출시된 삼성 페이는 약 2개월만에 하루 결제건수 10만 건, 누적 가입자 100만 명, 누적 결제금액 1000억 원 이상을 넘어서며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사용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페이, 2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하루 결제건수10만건
누적 결제액 1000억원
연내 교통카드도 추가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출시 2개월 만에 하루 결제건수 10만건, 누적 가입자 100만명, 누적 결제액 1000억원 이상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20일 선보인 삼성페이는 신제품 갤럭시 노트5를 비롯해 갤럭시 S6, S6 엣지, S6 엣지+의 인기와 함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갤럭시 노트5 구입자 중 절반 이상이 삼성페이에 가입하는 등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삼성페이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삼성 페이의 주요 사용처는 편의점, 백화점과 마트, 식음료 업종 등으로 최근 일일 10만 건 이상의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와 결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 역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일일 결제금액도 서비스 초기 7억~8억원에서 최근 2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삼성페이에 멤버십 카드 관리와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해 사용 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결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편리한 특화 기능과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페이는 지난달 말 미국에도 출시됐다. 또 지난 21일부터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도 참여하면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확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미 기자

'실적' 엇갈린 현대·기아차, 4분기엔 '신차' 기대감

신차 출시 따른 판매개선 큰폭 성장 전망 잇따라 친환경차도 적극 출시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4분기 신차 출시와 함께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3분기 성적표를 받아 든 현대자동차그룹의 형제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희비는 엇갈렸다. '동생'격인 기아차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반면 맏형인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흥국 환율 악재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늘고도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치며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신차효과'가 본격화되는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차도 신차 출시를 통해 3분기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25일 현대증권 채희근 연구원은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5%, 1.0%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감소폭은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신차출시 효과에 따른 판매 개선과 원화약세 영향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 6.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최근 출시한 신차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겁고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만큼 4분기 이후 본격적인 신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재경본부장)은 지난 22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로 일본 업체와 경쟁하다 보니 폴크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반사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유럽 판매 증대 역시 폴크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이라기보다 투싼 신모델 출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월과 10월 국내 판매 추이에서도 특별한 사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폴크스바겐 사태로 디젤 엔진에 인식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친환경차가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운 차종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친환경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출시한 카니발과 쏘렌토에 이어 최근 출시한 K5, 스포티지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기아차는 오는 12월 K7의 후속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아 K7은 올해 1~9월에 1만4546대가 판매돼 월 평균 1616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동급에서는 현대 그랜저(6만968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기아차가 K7 후속모델 출시로 1위와의 격차를 줄이고 실적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증권 채희근 연구원은 "기아차는 중국의 수요 개선과 한국과 유럽, 미국 등에서 신차 효과를 보고 있어 4분기 실적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신차효과와 판매 개선, 원화 약세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혁신+배려' 입힌 생활가전 인기몰이

'2도어냉장고' 3분기 월 평균 5000대 판매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들이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용자를 배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가 출시 37주 만에 국내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하루 평균 772대가 팔려나간 셈이다. 이 제품은 지난 2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북미·중남미·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전자동세탁기의 국내 매출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올렸다. 이에 힘입어 국내 전체 전자동세탁기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상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도 지난 3분기 월 평균 판매량 5000대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한 것이며, 올해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대비 약 170% 증가했다.

지난 7월 이탈리아 소비자 전문 잡지인 '알트로 컨슈모'는 삼성전자의 상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를 우수한 에너지 효율과 낮은 소음 등을 높게 평가해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드럼세탁기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6주 만에 국내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도어에 작은 창문인 '애드 윈도우'를 채용해 세탁·헹굼·탈수 등 언제든지 세탁물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 세탁 중 세탁물을 추가하기 어려웠던 기존 드럼세탁기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밖에 지난 9월 출시한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인 10월 첫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삼성 '파워봇' 로봇청소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이상(121%) 증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행사로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지난해 중국에서 개최된 '2014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Car Design Award 2014)' 행사장 전경.

/현대차동차

현대차, 中디자인공모전 국제 비즈니스상

콘셉트·홍보 등 높은 평가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개최한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이 '우수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4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이 미국 스티비사가 주관하는 '스티비 어워드'의 '국제 비즈니스상' 분야 유스마케팅 부문 금상과 브랜드관리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티비 어워드는 글로벌 기업의 우수한 마케팅, 홍보 프로젝트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가 받을 정도로 해마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비 어워드는 ▲미국 비즈니스상 ▲국제 비즈니스상 ▲아태지역상 ▲독일상 ▲판매 및 고객 서비스상 ▲여성 기업인상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 우수 기업과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분야별 수상작을 결정한다.

올해 스티비 어워드에는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총 3700여개의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현대차의 '2014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은 프로젝트 콘셉트와 홍보, 집행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어워드 조직위 관계자는 "현대차의 '2014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모범적인 마케팅 사례로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2014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은 중국 전역에서 총 639건의 작품이 출품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지 언론에 총 126차례 소개되고 중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바이두 검색 기록 80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정은미 기자

LG, 사계절용 냉난방에어컨 9종 출시

LG전자가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016년형 휘센 냉난방에어컨' 9종을 25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휘센 냉난방에어컨은 냉난방면적 52.8㎡(냉방)·41.7㎡(난방)의 스탠드형 2종, 24.4㎡, 20.3㎡~52.8㎡, 40.7㎡의 벽걸이형 7종 등 총 9종이다. 하나의 에어컨으로 난방, 냉방, 공기청정, 제습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춰 사계절 내내 최적의 실내 공기를 만들어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표 제품인 스탠드형 휘센 냉난방에어컨(FW161DS1W)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 등을 감지해 제품 전면부의 표시창에 실내 먼지 농도를 보여준다. 또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까지 감지해 나무 그림의 색상 변화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알려준다.

공기청정 성능도 있어 3MTM 초미세 플러스 필터로 머리카락 두께의 5000분의 1 수준인 0.02㎛(마이크로미터) 크기 먼지까지 제거한다. 또 하루 동안 500ml(미리리터) 생수통 170개 분량인 약 85L(리터)까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출하가는 스탠드형이 230만~255만원, 벽걸이형이 110만~185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카카오, 대리운전시장 진출? 포기?

사업자 "골목상권 침해" vs 기사 "처우 개선 효과"
첨예 갈등에 수익성 사업임에도 포기 가능성 제기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이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는 새로운 사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사업 중 하나로 대리운전 서비스(카카오대리)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리운전 사업자와 기사 간의 첨예한 갈등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이 시장의 사업성에도 불구, 카카오의 시장 진출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업체 사장 등이 포함된 전국대리운전협회 소속 회원 600여명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사옥 앞에 모여 "거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계획을 비판했다.

지난 7월 2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이뤄진 카카오 대리운전업 진출은 기존 시장 종사자들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대리운전업 관련 콜센터, 장애인 종사자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여건도 장기적 관점에서 열악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 대부분은 처우 개선을 이유로 카카오 대리운전업 진출에 찬성하고 있다. 한 대리기사는 "그동안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에게 단말기를 강매하거나 배차를 제한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대리기사들이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중개업체에 내고 있는데 카카오가 진출하면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업계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전망해왔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용제 연구원은 "카카오대리는 개인이 실외에서 접수하는 시스템이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며 "카카오대리는 카카오택시와 달리 바로 수익화가 가능하다. 카카오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사들이 최대 5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콜택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대리운전 이용자수는 47만 명에 이른다. 대리운전 수수료만 따져도 연간 5000억원 정도다. 연간 151억원 가량인 콜택시 수수료의 30배가 넘는 큰 시장이다.

카카오 측은 대리운전 시장 진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이지만 서비스 출시 결정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시위가 서비스 출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은 우려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모바일 오토 서비스가 중국과 같은 해외보다 미비한 상황임에도 신규 서비스 진출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계뿐 아니라 O2O 산업이 커가면서 각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사업자와 지역상권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기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서 비롯된 갈등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장진입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것이지, 기존 시장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상생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상생혁신센터 5주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플래닛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창립 5주년

모바일 ICT 사관학교로 자리매김

학생 개발자·글로벌 스타트업 등 13만여 명 모바일 전문가 양성

SK플래닛이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들과의 동반성장과 모바일 전문가 지원을 위해 설립한 '상생혁신센터'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SK플래닛은 이를 계기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혁신센터는 지난 2010년 10월 25일 설립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과 모바일 전문인재 양성 기관이다. 모바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력 등으로 스타트업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며 13만여 명의 모바일 전문가를 배출했다.

고교생 개발자 양성을 위해 상생혁신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스마틴 앱 챌린지'는 현재까지 5000여 명의 고교생이 참여해 110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19개팀이 창업의 꿈을 이뤘다. 또 스마트 ICT 인재육성 전문기관 'T아카데미'는 누적 수료생 8만여 명, 129개 앱 상용화, 전문가 과정 취업률 79.8%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난 2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캠퍼스를 새롭게 오픈하는 등 '스마트 ICT 사관학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 스타트업의 초기지원-정착-해외진출 단계까지 도움을 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101 스타트업 코리아'와 'K스타트업'은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71개 팀을 육성하고, 25개 스타트업에 총 200여억 원을 투자유치했다. 또 해외법인 설립 4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분야 전진기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다. /정문경 기자

"독점 제공 '실시간 미드' 큰 호응"

LG유플러스
한달 만에 150만건 시청 주 고객은 30~40대 남성



LG유플러스가 국내에 독점으로 제공 중인 실시간 미국드라마(미드)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 현지 방송 직후 48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안방에 바로 주문형비디오(VOD)로 독점 공급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NBC유니버셜의 대표 미드인 '히어로즈 시즌5: 리본' 등이 지난달 국내에 독점 제공된 이후 한달여만에 시청건수가 150만건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NBC유니버셜은 미국 4대 방송사인 NBC와 헐리우드 최대 영화사인 유니버셜이 합병한 회사다. 미드·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대 방송·영화 미디어 사업자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중순부터 제공하고 있는 NBC유니버셜의 대표 미드에는 '히어로즈 시즌5: 리본'과 '12몽키즈' '새티스팩션 시즌2' 등이 있다. 이들 미드는 LG유플러스의 각 플랫폼에서 골고루 팬을 형성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NBC유니버셜의 대표 미드는 20대 보다 30~40대 남성 고객이 주 시청층으로 분석됐다. NBC 유니버셜 미드 주 시청자는 남성 고객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그 동안 미드라는 장르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40대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65%로 여성(32%)의 2배를 차지했다.

/정문경 기자

KT-두타, 유커 대상 '실시간 모바일 광고' 서비스

할인쿠폰·쇼핑안내 등 제공



KT는 동대문 패션전문점 두타, 중국 디지털마케팅 전문회사인 평타이 등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대상으로 쇼핑안내, 할인쿠폰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KT의 '기가(GiGA) 비콘 존'을 이용한 이 서비스는 요우커들이 인천공항, 명동, 강남역, 동대문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방문할 경우 평타이가 유커 대상으로 제작한 앱 '한국지하철(한구어띠티에)'을 통해 두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과 다양한 이벤트·쇼핑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두타는 12월22일까지 해당 앱을 설치한 외국인 고객 모두에게 두타 패션상품권, 한류 디자이너 곽현주 파우치, 두타 인기매장 할인 쿠폰북, DDP 전시 할인쿠폰도 함께 증정한다.

또 두타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한식당 '하모' 식사권도 제공해 패션, 컬처, 푸드가 결합된 관광 패키지로 외국인 관광객의 동대문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KB·하나 합쳐도 신한보다 '이익 적네'

3분기 4대지주 실적

신한 순익 6790억원 작년 동기比 7.4%↑ 올 누적실적도 선두

KB 4071억, 격차 뚜렷

금융지주사의 올 3·4분기 실적 성적표는 신한금융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7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섰다.

반면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작년보다도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신한과의 격차를 실감했다.

주로 예대 마진 차이를 의미하는 순이자마진(NIM)이 저금리 기조 여파로 작년 동기보다 줄어 들었지만 양호한 대출증가율, 대손충당금 적립 감소로 금융지주사의 올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지주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올 3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7.4% 증가한 679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KB금융(4071억원)과 하나금융(2534억원)이 3분기에 거둔 실적을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의 힘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금융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 가운데 은행 비중은 59%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작다. KB는 은행 비중이 67%, 농협은 70%, 하나는 88% 수준이다.

주력 계열사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462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 전분기보다 15.5% 증가했다. KB국민은행(2336억원), KEB하나은행(2281억원), NH농협은행(1308억원)의 3분기 실적보다 각각 2~3배 많은 성적이다.

은행 연체율도 0.43%로 KB국민은행(0.45%), KEB하나은행(0.79%), NH농협은행(0.79%)보다 낮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누적 실적에서도 단연 선두다. 1조9631억원의 순이익을 내 KB금융(1조3517억원), 하나금융(1조23억원), 농협금융(6197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2위인 KB금융과 순이익이 6000억원 넘는 격차가 벌어져 올해도 신한금융이 금융지주사 실적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8년부터 순이익을 기준으로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으로 신한금융을 제쳤던 KB금융지주는 이번 3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8.8%(391억원) 떨어진 407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다만 전분기 보다는 19.9% 개선됐다. 부진의 원인은 2440억원에 달하는 영업외손실이 크게 작용했다.

포스코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이 877억원에 달했다.

SK주식 매각이익(122억원)을 제외하고 뚜렷한 일회성 이익도 없었다.

전분기에는 안심전환대출 채권매각이익(618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 매각이익(1382억원)이 있었다.

하나금융지주도 작년 동기보다 8.2%(226억원) 떨어진 2534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판매관리비가 2분기보다 779억원(7.7%) 늘어나 타격이 컸다.

NH농협금융은 작년 동기보다 2.7%(47억원) 증가한 182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233억원 늘어났지만 판매관리비 등이 증가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금융개혁, 들소처럼 앞으로 나갈 때"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 자구노력 전제 지원 엄정한 평가로 옥석 가릴 것"



"금융개혁은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아프리카 들소인 누우처럼 앞으로 나갈 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경기도 용인 기술보증기금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체육대회를 찾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누우들은 사자와 악어에게 많이 희생당하지만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초원에 도달한다"면서 "지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겨내야만 시대적 소명인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한계기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지원하고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이 발언은 구성원들의 뼈아픈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규 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수 조원대의 손실로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고강도 자구계획과 이와 관련한 노조의 동의서를 먼저 받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해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은행이 엄정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하고,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구조조정 3원칙이라고 소개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대학생 봉사단체 '십시일밥' 청년희망펀드 가입

대학생 비영리민간단체인 '십시일밥' 소속 한양대생 119명이 봉사활동으로 번 35만7000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기준금리 내렸지만 은행 가산금리 되레 올라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내렸지만 서민들이 체감 금리 인하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7개 국내 주요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현재 평균 금리는 2.98%였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13년 6월 말 3.82%에서 2년 사이에 0.84%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인하한 기준금리 폭(1.0%포인트)보다 작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2.5%에서 올해 역대 최저수준인 1.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간에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린 곳은 수협·우리·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은행 등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 이하의 인하폭만을 기록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맞춰 기준금리는 내리는 대신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 금리인하폭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8월 말 현재 17개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는 평균 1.81%로 2년 전보다 1.17%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는 평균 1.17%포인트로 2년 새 0.33%포인트 상승했다.

2년 전에는 가산금리가 1%를 넘는 은행이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에는 기업은행(0.57%)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모두 1% 이상의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김보배 기자

은행 해외점포, 이젠 '중국' 보다 '베트남'

지난해 1위 中 넘어 19곳으로 가장 많아

국내 은행들의 해외 거점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163개(37개국)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점포 종류별로 보면 현지법인 43개와 지점 67개, 사무소 53개다.

시중은행들은 상반기에 베트남 호찌민, 인도 첸나이·뉴델리,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멕시코 멕시코시티, 가나 아크라 등 7곳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신설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6곳에선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를 철수했다.

소재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08개로 전체 해외점포의 66.3%를 차지했으며 유럽(22개)과 북미(20개)가 각각 13.5%, 12.3%로 뒤를 이었다.

단일 국가로 보면 베트남이 19개로 가장 많다. 베트남에 설치된 은행 해외점포는 지난해 말에 18개로 그동안 1위였던 중국을 넘어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곳이 더 늘었다.

중국 해외점포는 6월 말 기준 14개로 지난해 말보다 1곳 줄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894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중국 지역에서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6%에서 크게 둔화됐다. 해외점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1%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3억7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

금감원은 중국 등 진출국의 경기 둔화를 감안해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中 경기부양 의지 확인"… 소비 관련株 호재

中 기준금리 인하 영향 실물·금융 호전 가능성
美 금리인상 계기 등 변동성 확대 우려도

중국 당국이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G2) 축인 중국 당국이 보인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내수가 살아난다면 삼성전자·현대차 등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 줄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증시 중국발 호재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은 G2(미국, 중국) 리스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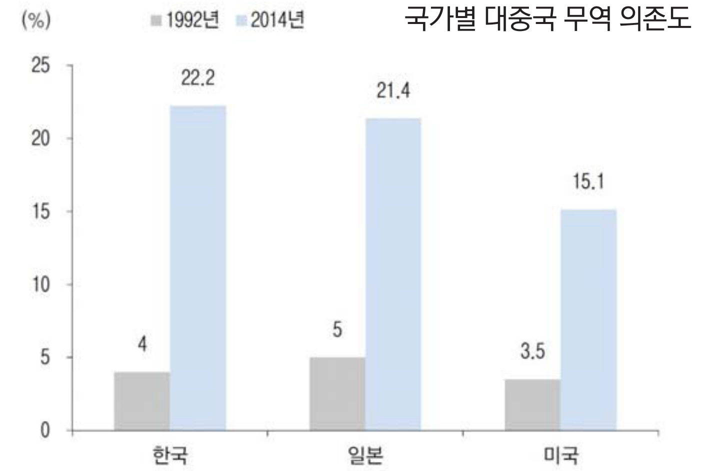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덕분에 한국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우려 그 자체였다.

국제 금융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해 한국 금융시장까지 변동성을 높게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는 0.21%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0.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당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침체 국면에 놓인 우리 경제의 실물과 금융 부문에서 모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채권·주식 등 금융시장이 앞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성장 속도를 고속에서 중속으로 조절하면서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동력을 바꾸는 개념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흐름의 연착륙 가능성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국 서비스, 소비 관련주 주목

한국은 총 수출액의 25%를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과 일본 의존도가 각각 13%, 5%인데 비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먼저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은 내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자·반도체 업종도 환율이 변수지만 조심스런 기대를 하게 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 종목 중 하나이다. 올들어 6월까지 우리나라 수출품 중 가장 많은 309억94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6.0% 성장했다. 휴대폰도 중국이 최대 시장 중 하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들도 빛을 볼 전망이다.

다만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전망이다.

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투자와 생산의 구조적 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경기부양 효과도 제조업의 반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국 서비스, 소비관련 핵심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중국 소비관련주 중 이익 성장에 논란이 있는 화장품 보다 선제 주가조정이 나타나고 중국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제일기획, 오리온, 코웨이, CJ대한통운, CJ CGV가 중국 서비스와 소비 관련 핵심 종목으로 재부각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유안타증권, '유안타로의 초대' 이벤트 시행

유안타증권은 올해 말까지 신규계좌 개설 고객과 주식 입고와 중국펀드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유안타로의 초대' 이벤트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유안타증권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될 기업은 된다

S-Oil·롯데하이마트 예상 뛰어넘은 흥행기록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예상은 뛰어넘는 흥행에 표정관리 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S-Oil(신용등급 AA+)은 3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7100억원의 투자 주문이 접수됐다.

1500억원을 발행 계획이 잡힌 5년 만기 채권에는 4700억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7년 만기(700억원)와 10년 만기(800억원)에 각각 700억원, 1400억원의 투자자금이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S-Oil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기업평가는 다만 S-Oil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중단기 정유업황이 이전보다 높은 실적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입부담 확대를 수반하는 대규모 신규투자 추진으로 종전대비 재무안정성의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AA-'인 롯데하이마트도 흥행에 성공했다. 롯데하이마트는 AA+등급보다 낮은 수준의 민평금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3, 5년물 중심으로 수요예측에 성공하며 3년물을 300억원 추가 증액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6월말 총차입금 8428억원, 순차입금 7979억원 기록해 총차입금의존도 28.7%, 순차입금의존도 27.2%, 부채비율 69.3% 이다.

/김문호 기자

'자사주 매입' 삼성 지배구조 증권가 관심

주주친화책·경영효율 '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상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배구조 변화 시나리오는?

첫발은 이미 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이 그 출발점이다.

증권가는 두 회사의 합병이 3세 승계와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을 공개, 후속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시장의 관심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수순은 삼성SDS 보유주식의 활용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측이 합병설을 부인한 것은 삼성SDS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삼성전자 주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게 시장의 분석이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성공으로 삼성SDS의 소규모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상 급한 사안이 아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삼성전자 상속분 고려)고 가정할 때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3세들은 기존체제와 같은 수준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현행법보다 '원샷법'이 만들어진 후 합병(삼성전자 지분 3.4% 확보 가능)하는 게 유리하다. 원샷법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관계자가 많은 주주총회 대신 회사내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 기준인 새 주식수를 전체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삼성SDS는 3세 지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의 핵심에 있는 관계사 지분 역시 크다"면서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두 회사의 합병을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전망한다.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SDS 지분 19.05%가 '의미 있는' 삼성전자 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삼성전자 인적분할 이후 궁극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부문이 합병,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비롯해 삼성그룹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합병보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영효율화에 집중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삼성이 주주친화정책과 경영 효율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인적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칠 때 오너 지분율 보완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보다는 장기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두어 차례 나누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초 배당축소로 주가하락이 컸던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배당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삼성그룹의 최근 행보도 그룹의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강남재건축 고분양가 후폭풍… 인근단지 들썩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겨
반포, 석달 만에 2억원 치솟아

올해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근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 113㎡(전용면적 84㎡)는 최근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4억~15억원와 비교해 석달 만에 무려 2억원 가량 치솟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반포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130만원에 분양된데 이어 지난달 서초 삼호가든 4차를 재건축한 반포 푸르지오써밋의 분양가가 3.3㎡당 4040만원으로 책정되자 이 아파트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매가를 올리고 있다.

바로 인근의 반포 자이 아파트 84㎡(전용 59㎡)도 현 매매가가 9억2000만~10억3000만원으로 추석 이후 2000만~3000만원이 뛰었다.

단지 주변 한 공인중계사는 "중소형 매수세가 꾸준하긴 하지만 최근 거래가 다소 주춤해진 것을 감암하면 확실히 거래량에 비해 시세 상승폭이 크긴 하다"며 "최근 재건축 분양가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삼호가든 3차도 푸르지오 써밋 분양가에 자극받아 최근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119㎡이 11억4000만~11억50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된 후 현재 호가가 11억5000만~11억7000만원으로 최고 2000만원 가량 올랐다.

다음달 일반분양을 앞둔 인근 서초 한양(서초래미안아이파크)은 일반분양가를 3.3㎡당 4200만~4300만원에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와 이웃한 서초 삼풍·미도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1000만~2000만원씩 오르며 초강세다.

재건축 분양가의 후폭풍은 강남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 49㎡는 추석 전 9억~9억1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호가가 9억5000만원까지 올랐고, 42㎡는 추석 전 7억8000만원이던 것이 현재 8억~8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도 추석 이후 2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이 아파트 112㎡는 추석 전 11억7000만원에서 현재 11억9000만원, 119㎡는 13억1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3.3㎡당 2954만원에서 9월 말 현재 3160만원으로 206만원 상승했다.

서초구도 작년 말 3.3㎡당 2680만원에서 현재 2825만원으로 145만원 뛰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일반분양이 많았던 개포동과 반포동은 9월 말 현재 시세가 각각 3.3㎡당 3934만원, 3860만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392만원, 266만원 상승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분양가 인상은 조합원 수익 증대와 직결돼 인근 재건축 단지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 아파트까지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수도권서 1만7000가구 쏟아진다

이번주, 전국 2만2561가구 공급

10월 마지막 주(26~30일)에는 전국 28개 사업장에서 2만2561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경우 삼성물산이 강북과 강남에서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 1009가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593가구 등 1만736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지웰' 219가구 등 5195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전국 36곳에서 열린다.

삼성물산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7-19일대를 재건축한 '래미안이수역로이크파크'는 30일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3층~지상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23㎡, 66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41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삼일초와 남성초, 사당중, 동작중고교 등이 밀집해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지하철 4호선 이수역이 가까워 교통여건도 좋다.

삼성물산은 같은 날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견본주택도 연다. 지하 3층~지상 39층, 24개동, 전용 33~123㎡, 2352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36가구에 달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역세권 단지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8 래미안갤러리 3층 이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견본주택을 30일 열 계획이다. 지하3층~지상35층, 84개동, 전용 39~130㎡, 9510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50가구다.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이며 동남권 개발축의 중심에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길 기자

용인 미봉스타오피스텔, 20가구 선착순 분양

분양가 1억500만원부터



미봉이앤씨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용인 경전철 초당역 앞 미봉스타오피스텔(조감도) 20가구 선착순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면적 22.27㎡, 공용면적 30.08㎡로 분양면적은 52.35㎡다. 분양가는 1억500만~1억1500만원이다. 오피스텔은 준공후 임대가 완료돼 수익률이 약 11%에 달한다는 게 미봉이앤씨의 설명이다. 약 7000만원에 2채를 분양받으면 은행이자 공제후 매월 65만원씩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초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10분 이내에 강남대와 용인대, 명지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등 5개 대학이 밀집돼 있다. 삼성물산기술연구소와 동백지식산업센터, 에이스 공장형 아파트, 종근당 기술연구소도 있으며, 98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 병원이 공사 중이다.

/박상길 기자

LH, 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순항'

상반기 5곳 평균 낙찰률 77%
하반기 5곳 입찰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계획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10건 발주를 성공적으로 끝났다.

종심제는 관급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간 저가 수주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안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공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건설안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입찰 공고가 마무리된 5곳은 평균 낙찰률 77.89%를 기록하며 모두 주인을 찾았다.



LH 진주사옥 조감도. /연합뉴스

25일 LH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 의정부 민락 2지구 A-7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9공구 입찰을 시작으로 인천 가정 9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인천 서창2지구 15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11공구·파주 운정 A21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17공구 ▲7월 충남 공주 월송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10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양주옥정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행정중심복합도시 2-2M8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경남 혁신 A-3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입찰 공고를 마무리했다.

의정부 민락2지구 A-7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9공구는 5월 21일 입찰 공고돼 7월 13일 마감됐으며 남양건설이 274억6194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인천 가정 9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5월 29일 입찰 공고돼 7월 23일 마감됐으며 남양건설이 689억4262만원에 낙찰받았다.

같은 기간 입찰 마감된 인천 서창2지구 15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11공구는 케이알산업이 250억8316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파주 운정 A21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17공구는 한라가 550억7120만원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7월 30일 입찰 공고된 상반기 마지막 입찰 물량인 공주 월송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서한이 258억3347만원에 낙찰받았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 양주옥정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2M8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경남 혁신 A-3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만 이뤄진 상태다. LH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감에 들어가 9일 종료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3면 개방·테라스 설계 인기… 사흘간 2만명 발걸음

GS건설 '오산세교자이'

GS건설은 지난 23일 문을 연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2-9 오산세교자이 견본주택에 사흘간 2만여 명이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면적 75~83㎡의 중소형 아파트지만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남향위주 배치 구조에 3면 개방형 설계, 자이로프트 등 특화설계가 내방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전용 75㎡는 수납공간은 물론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83㎡는 3면 발코니 개방형 설계가 적용됐다. 2면 개방 아파트보다 채광, 통풍이 좋을 뿐 아니라 확장 시 실사용 면적이 타 상품에 비해 4~5평 정도 더 늘어났다.

단지 최상층 50가구에 들어서는 '자이로프트'는 테라스로 설계한 평면이다. 전용면적 외에 별도 룸(Room) 32~42㎡와 테라스 64~71㎡ 공간이 각각 따로 제공돼 최대 113㎡의 서비스 면적이 주어진다.



오산세교자이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GS건설

청약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11월 5일 당첨자 발표, 11일~13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K-두산, 유치 관건은 '지역 상생'

DUTY FREE 면세점 2차 대전… 동대문을 잡아라 ①

내달 초 서울 3곳·부산 1곳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관련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롯데, 현대, 신세계, 한화 등이 격돌했던 첫번째 면세점 입찰 경쟁에 이은 두번째 면세점 대첩에서의 관전포인트는 SK네트웍스와 두산그룹의 동대문 맞대결이다. 동대문 면세점 유치를 위해 경쟁에 뛰어든 이들은 각각 '상생'을 최우선에 둔 운영전략을 발표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SK네트웍스와 두산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전략을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워커힐 면세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아임쇼핑'을 찾아 상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SK네트웍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그룹 본사. / 두산그룹

서울 동대문 면세점 유치를 위해 SK네트웍스와 두산그룹이 승부수를 던졌다.

두산은 두산타워(두타)를, SK네트웍스는 케레스타 빌딩을 면세점 유치장소로 낙점한 상태다. 양사는 면세점 사업으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을 내세워 특허권 따내기에 사활을 걸었다.

두산은 26일 동대문 지역 발전을 위한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식을 연다. 27일 SK네트웍스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세 사업을 통한 사회 환원 정책 등 구체적인 전략 발표에 나선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은 연간 7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면세점 입점지로 각광 받고 있다. 두타와 케레스타 빌딩 인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통시장, 청계천 등이 있어 면세점 유치 시 고객 유입이 용이하다.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운영 노하우 케레스타까지 전파

SK네트웍스는 동대문에 면세점 유치시 2020년까지 1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 전통시장·중소업체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SK네트웍스
케레스타 빌딩 7개층 운영
75%를 중기제품으로 구성
5년내 1300만명 유치 목표

두산그룹
유치시 이익 10~20% 환원
두타 빌딩 약 9개층 운영
지역 상권 공유 방안 검토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23년간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통해 면세·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중소상생 실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케레스타 빌딩의 7개 층에서 1만6259㎡ 규모로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33대의 대형버스 주차장도 보유했다. SK네트웍스는 전체 매장의 50%를 K-패션관·K-라이프관·K-키즈관 등 국내 브랜드 전용 매장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7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울 예정이다.

케레스타에 들어설 면세점 규모는 내달 그랜드오픈하는 워커힐 면세점 1만2384㎡보다 약 3967㎡가량 크다. 워커힐 면세점의 지난해 3.3㎡당 매출액은 1억2011만원이다. SK네트웍스 측은 2020년 워커힐 면세점에서 1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두산, 새벽쇼핑족을 위한 두타면세점으로 차별화

두산은 면세점 유치 시 면세점 이익의 10~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동현수 두산 사장은 최근 두타 면세점 사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산이 면세점을 유치할 경우 사업장은 두타 빌딩 내 약 9개 층에서 1만7000㎡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 대표는 "두산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기존 면세점이 문을 닫을 경우 이 인력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겠다"며 "내년 5월에 면세점 운영을 시작하면 첫해 매출 5000억원, 이듬해 1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도 면세점 유치시 지역·중소상생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면세점 1~2㎞ 반경 안에 버스 100여 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지역 상권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면세점 내 매장, 면세점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에 소상공인과 중소 패션 업체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두산은 심야 면세점 운영까지 검토 중이다. 동대문에 심야 쇼핑객이 몰리는 점을 반영해 면세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오전 5시까지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창립 36주년 기념 경품행사



롯데백화점은 창립36주년을맞아 총 4억원에 해당하는 360대의 김치냉장고를 증정하는즉석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롯데백화점 전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구매와 상관없이 L.Point카드 소지 고객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1일 1인 1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점포별 사은행사장 내 쇼핑메이트 기계에서 L.Point 카드를 센싱하면 당첨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명품 편집매장 '10꼬르소꼬모'와 연계해 제작한 감사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감사품인 에코백(사진)과 머그컵은 30일부터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각각 1만개, 9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정용기 기자



CU

우리역사 알리기 캠페인

편의점 CU(씨유)가 '우리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역사 알리기 캠페인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애용하는 편의점을 통해 우리역사를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에 활용될 'CU Big 가공유' 5종(초코, 메론, 바나나, 커피, 딸기)은 모두 CU 유제품 매출 상위에 랭크돼 있는 PB(자체브랜드) 상품이다. 이들 제품 패키지에는 시대별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과 위인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을 함께 소개한다.

/정용기 기자

현대홈쇼핑

해외명품 특집 방송

현대홈쇼핑이 26일부터 31일까지 6일동안 해외 명품 전문 프로그램인 '클럽노블레스'의 1300회 특집위크를 진행한다.

1300회를 맞이한 클럽노블레스는 6일간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씩 생방송 특집으로 진행된다. 특집 방송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는 구찌, 프라다, 버버리, 보테가베네타 등이다.

26일에는 구찌 신상 '미스 GG 숄더백'(155만 5000원)과 '구찌 여성시계'(89만원)을 판매하고, 폴란드 모피 브랜드 '제나'의 베스트 및 울코트를 첫 단독 론칭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롯데그룹 특별채용

전역연기 장병·보훈대상자

롯데그룹은 전역 연기 장병과 보훈대상자를 특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인원은 전역 연기 장병 14명이다. 롯데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설치와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9월 특별 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특별 채용에 참여했던 전역 연기 장병 10명은 이달 1일을 시작으로 현재 5개 계열사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롯데는 1차 특별 채용 당시 향후 전역 예정자에 대해서도 희망에 따라 전원 채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2차로 취업 의사를 밝힌 14명에 대해서도 전원 채용키로 했다.

한편 롯데는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도 진행한다. 채용 인원은 약 40여명이다. 지원서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장애·비장애 넘은 '슈퍼블루 마라톤' 성료

롯데그룹-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슈퍼블루 5㎞코스' 축제
장애인 등 5000명 참가



24일 슈퍼블루 마라톤에 참가한 장애인·비장애인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제1회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슈퍼블루 마라톤은 롯데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슈퍼블루'의 일환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황영조 슈퍼블루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300여명을 포함한 5000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 코스는 10㎞코스와 5㎞코스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코스로 마련된 '슈퍼블루 5㎞코스'는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달리는 시각장애인 등 마라토너들과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배려하며 경주보다는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용기 기자

이미지 개선·호기심 자극… 차이나푸드 '역습'

품질력 보증 브랜드 론칭
동양적·이국적 맛의 조화
'중화풍 식음료' 시장 개척

차이나푸드가 몰려온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식품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편견 아래 저평가됐던 식음료들이 품질력을 보증하는 브랜드를 입고 익숙한 동양의 맛과 중국 현지의 이국적인 맛을 앞세워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중화풍 식음료'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는 물론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중화풍 식품을 적극 출시하는 추세다.



칭따오 맥주



이금기 굴소스

중국 맥주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칭따오(Tsingtao)'는 중화풍 식음료의 인기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2000년 국내에서 론칭한 칭따오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할인마트 매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 상반기(1월~8월) 롯데마트 수입 맥주 판매량에서 하이네켄, 아사히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첸향 육포

특히 '양꼬치엔 칭따오' 마케팅을 통해 칭따오 맥주의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중식 대표 메뉴인 양꼬치까지 널리 알린 바 있다.

양꼬치,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딤섬 등 정통 중식메뉴 또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식 맛을 좌우하는 굴소스도 현지 브랜드가 국내 소스 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금기'다. 이금기는 1888년 홍콩에서 탄생한 소스 전문 브랜드로 굴소스를 처음으로 개발하며 중화 요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몇 해전만 해도 전문 쉐프들만 쓰는 특별한 소스였지만 TV프로그램 쿡방, 먹방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연평균 2배이상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S25가 지난 8월 출시한 대만 비피도사의 '농후계 밀크티'가 불과 두달 사이 12만 병 이상 판매되며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는 더심플밀크티, 더심플그린밀크티, 더심플라떼, 더심플만델링까지 4가지 맛을 출시했다. 화장품 통을 닮은 특별한 디자인 때문에 '화장품 밀크티'라는 애칭까지 붙으며 SNS를 타고 더 빠르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의 육포 전문점 '비첸향'은 국내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하며 시장 저변을 넓히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전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렸던 식품이다. 샘표식품 역시 육포 브랜드 질러에 비첸향풍의 제품을 추가해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화풍 식음료들의 인기 요인에 대해 식품 수입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잦은 해외 여행과 활발한 SNS 활동으로 해외 유명 제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중국과 대만 등지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며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중국 식음료가 많아 앞으로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드리블 슈팅 시범을 보이고 있는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한국 코카콜라가 공동 주관한 '모두의 올림픽' 행사에는 1600여 명의 학생과 인기 스포츠 스타가 대거 참석했다.

차범근·김연아… 스포츠 영웅 한 자리에

한국코카콜라 '모두의 올림픽'

한국 코카콜라는 한국청소년건강재단,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모두의 올림픽' 페스티벌을 2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페스티벌에는 42개 학교, 1600여 명의 학생과 스포츠스타들이 참여했다.

모두의 올림픽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올림픽 종목 체험과 즐거운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스포츠 축제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별 토너먼트 종목 2종과, 올림픽 경험 종목, 플라잉 디스크, 드리블 슈팅 게임, 트릭아트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개막식에서는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개회사를 했으며 '피겨 여왕' 김연아도 개막 선언에 참여했다. 역도 선수 장미란은 선서문 인수자로 사격 선수 진종오는 성화점화로 행사를 빛냈다.

/김성현 기자 minus@

개점 줄고 폐점 늘고… 카페베네, 2위도 '위태'

빅3 커피숍 정보공개서 분석
2년 새 폐점률 2배 가량 증가
이디야에 1위 내주고 '고전'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이어지던 물장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창업시장에서 물장사는 커피와 주류로 대표된다. 이 중 커피 전문점 시장이 심상치 않다.

25일 메트로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3개사의 지난 3년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개사의 신규 개점수가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2년새 폐점률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왔던 카페베네는 지난해 매장수 1위 자리를 이디야에 내줬다. 이디야는 매장 오픈 시 요구하는 최소 면적 기준이 다른 커피전문점보다 작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점을 앞세워 지난해 한해동안만 389개 매장을 새로 열었다. 커피전문점 브랜드 사상 최초로 1000호 돌파 기록도 달성했다. 신규 매장이 늘었음에도 불구, 폐점률도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이디야의 폐점률은 1% 미만이었다. 폐점률은 창업 후 가맹점주들의 수익 안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매장 운영 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수록 폐점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다면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빅3 커피전문점 출점 현황

연도	브랜드	총 매장	개점	폐점
2012	카페베네	776	127	27
2013		850	101	27
2014		886	89	53
2012	엔제리너스	629	166	17
2013		762	157	24
2014		833	110	39
2012	이디야	625	210	12
2013		863	249	11
2014		1240	389	12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이디야의 선전과 달리 2, 3위 기업은 총 매장수는 늘어났지만 신규 개점은 매년 줄고 폐점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3년래 최저수준인 89개 매장을 새로 열었다. 2012년 127개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폐점 또한 53개로 전년 동기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엔제리너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엔제리너스도 2012년 166개를 신규개점했으나 지난해 110개를 새로 여는데 만족해야했다. 그러나 카페베네에 비해 신규개점수가 많고 폐점수가 적은 것에 힘입어 2위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2012년 150개 가량 차이를 보였던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의 지난해 매장수 차이는 17개에 불과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커피전문점 시장규모가 매년 20% 가량 증가하고 5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창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증가한 것을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의 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창업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커피 판매가격이 낮은 브랜드에 대한 커피전문점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디야와 요거프레소 등의 약진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새로 나왔어요

올가홀푸드 '치즈 토마토 식빵'
토마토 과즙으로 반죽 영양만점

풀무원 계열사 올가홀푸드는 토마토를 통째로 넣어 만든 '올가 치즈 토마토 식빵'(사진)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가 치즈 토마토 식빵은 유기농 밀가루와 유정란에 배합수 대신 친환경 토마토 과즙으로 빵을 반죽했다. 토마토를 껍질과 씨앗까지 통째로 넣어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우유와 잘 어울리며 평소 채소를 즐겨먹지 않는 성장기 자녀의 영양간식으로 좋다. 가격은 400g기준 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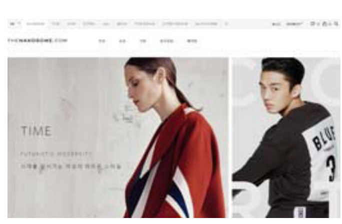
/김성현 기자

한섬 "타임·시스템 쇼핑 '클릭' 하세요"

온라인몰 '더한섬닷컴' 오픈

현대백화점그룹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6일 자사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통합몰 '더한섬닷컴(www.thehandsome.com)'을 오픈한다.

한섬 통합 온라인몰 '더한섬닷컴'에는 타임과 타임옴므, 시스템과 시스템옴므, SJSJ 등 국내 브랜드 8개와 끌로에, MM6, 이치아더 등 수입 브랜드 8개 등 총 16개 브랜드의 상품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선보인다. 또 수입의류 편집숍으로 로드숍과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톰그레이하운드'와 '무이'도 입점해 다양한 패션브랜드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타임, 마인, 시스템 등 6개 국내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모아 놓은 '한섬 온라인 아울렛'도 운영한다.



더한섬닷컴 홈페이지. /현대백화점

한섬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더한섬닷컴' 오픈 기념으로 가입 고객에게 5% 할인 쿠폰과 한섬 상품 첫 구매 회원에게는 3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쇼핑·영화…驛 인근 원스톱 단지 뜬다

신분당선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주목'
코엑스보다 큰 쇼핑몰·교육 인프라 풍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교통 혼잡을 피해 걸어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원스톱 문화공간 인근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평균 15만명이 몰리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현재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마무리 됐다. 경기 광명시 역시 이케아 입점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등이 연이어 청약 1순위 마감된 데 이어 계약도 조기 완료된 상태다.

가까운 곳에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찾는 유동인구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롯데건설이 오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 일대에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조감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지난 7월 용인시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에 들어선다. 이 사업은 성복역 인근 대지 면적 6만4000여㎡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아파트 2356가구,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약 2700가구의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지하 6층~지상 34층 13개동 규모로 전용 면적 84~99㎡ 아파트 2356가구(84㎡·2026가구, 99㎡·3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84㎡ 이하 중소형이 약 85%를 차지하며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다.

단지 내에 들어서는 초대형 쇼핑몰은 연면적 16만㎡로 삼성동 코엑스(15만4000㎡)보다 크다. 국내 백화점 규모 순위 7위인 신세계 경기점(약 17만㎡)과 비슷한 규모다.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쇼핑센터도 입점할 예정이다. 단지 내 2016년 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신분당선 성복역과 바로 연결되며 지하철이 개통되면 강남으로 2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신분당선 개통 이외에도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시내외곽과 강남까지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수지초와 정평중, 풍덕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수 부족 예상 103곳 가뭄해갈 대책 1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103개 지역에 용수확보 대책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총 3만ha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양수 저류, 지하수 개발 등의 용수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특히 극심한 가뭄이 우려되는 인천 강화 북부지역, 충남 보령 부사호, 문경 경천저수지 등은 특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누적 강수량은 762㎜로 평년 1225㎜의 62% 수준이다.

농림부는 올해 가뭄의 영향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송혜경 교수(오른쪽)가 국제소화내시경학회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이화의료원 송혜경·심기남 교수팀 국제학회 우수상

과도한 음주·복부 비만
역류성 식도염 관계 밝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송혜경(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심기남(위·대장센터)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국제소화내시경학회(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한 한국인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추이: 단일기관의 4년간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혜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역류성 식도염이 과도한 음주와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송 교수는 추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생활습관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송 교수는 위장관 내시경 전문가로 서울아산병원 전임의와 건강증진센터 임상조교수를 거쳐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위장관 질환 연구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



홍콩에서 열린 '2015년 홍콩 메가쇼'의 모습.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파견돼 70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현장계약을 성사시켰다. /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안전보건공단
배달원 안전시스템 높은 평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최근 이륜차 배달원의 재해예방 등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맥도날드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은 서비스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제도다.

한국맥도날드는 그동안 본사 차원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매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지난 5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 보완사항 개선 후 이번에 본사와 시흥점, 여의도점, 역삼점, 양재 SK점 등 4개 우수지점이 인증을 받게 됐다.

한국맥도날드는 본사의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전국 매장에 지점장을 중심으로한 안전팀을 두고 생산, 판매, 유지·보수, 이륜차 등 4개 부문별로 나눠 직원들이 직접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배달 주문 서비스가 많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에 따라 이륜차 배달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활동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지점별 근거리 배달 가능지역 설정 △비나 눈이 많이 올 경우 배달서비스 중지 △모든 배달직원에 보호장비 지급 △전 매장 80cc이하의 저속 배달 오토바이 보급 △배달 오토바이 후면 안전반사 표지 부착 △우수 안전 배달직원 포상 △정기안전교육 등을 통해 배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

주방가구, 몸 값 '다이어트'

한샘·에넥스·리바트
홈쇼핑서 100만원대 경쟁

주방가구가 다이어트에 나섰다.

가구기업들이 앞다퉈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100만원대 주방가구 출시가 크게 늘었다. 100만원대 주방가구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한샘과 에넥스에 이어 리바트가 홈쇼핑 주방가구를 론칭하면서 100만원대 주방가구 시장 3파전을 예고했다.

리바트는 최근 주방가구 브랜드를 '리바트키친'으로 통합하고 지난 11일 홈쇼핑 론칭 방송을 통해 100만원대 제품을 선보인결과 600건이 넘는 상담건수와 1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리바트가 선보인 홈쇼핑 주방가구는 '디자이너스키친'으로 2.4m(주거면적 66㎡대) 기준 가격을 169만원에 책정했다.

이는 경쟁사 대비 1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가장 소비가 활발한 99㎡대에 적용하는 주방가구 가격도 199만원대에 불과했다.

홈쇼핑 주방가구 시장 1위 기업인 한샘도 100만원대 후반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있으며 에넥스도 지난해 1~2인가구를 겨냥한 주방가구를 출시하면서 100만원대 주방가구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에넥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레볼루션 키친 시리즈가 홈쇼핑 1회 방송으로 상담계약만 약 1000건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한 것도 현대리바트의 가격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레볼루션 키친시리즈는 레고가 170만원대(2.4m 기준), 엣지가 190만원대(2.4m)로 홈쇼핑 주방가구 사상 최저가 판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중소기업중앙회
홍콩 메가쇼 700억 수출 성과 1064건 상담·27건 현장 계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홍콩 메가쇼'에 중소기업 50개사를 파견, 7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현장계약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064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규모는 약 5320만 달러(한화 약 600억원)다. 현장 계약은 27건으로 942만 달러(약 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홍콩 메가쇼에서는 'PN풍년'이 출시한 북유럽풍 냄비와 프라이팬이 인기를 끌었고 'M2Korea'의 휴대용 먼지·털 제거기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메가쇼는 홍콩 최대의 소비재 전시회로 올해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총 120여 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김성현 기자



‘더 폰’, ‘마션’ 독주 꺾었다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 ‘특종: 량첸살인기’는 3위

한국 스릴러 영화 ‘더 폰’이 ‘마션’의 독주를 꺾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폰’은 개봉 첫 날인 지난 22일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해 주말인 24일 토요일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24일 하루 동안 모은 관객 수는 24만9471명이다. 누적 관객수는 49만8557명을 기록했다.

같은 날 개봉한 ‘특종: 량첸살인기’는 3위에 머물렀다. 24일 토요일에는 12만7146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29만6438명이다.

‘마션’은 ‘더 폰’에게 박스오피스 정상을 내줬지만 흥행 기세는 계속되고 있다. 24일 동원한 관객 수는 22만6439명이다. 누적 관객수는 374만7901명을 기록해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턴’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8만6983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308만6331명을 넘어섰다. 22일 개봉한 ‘돌연변이’는 박스오피스 5위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김하늘, 내년 3월 결혼

1년 교제한 한 살 연하 사업가



배우 김하늘이 결혼한다.

김하늘 소속사 SM C&C는 23일 “김하늘이 내년 3월 19일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김하늘의 예비 신랑은 1세 연하 사업가다. 두 사람은 약 1년여 동안의 진지한 만남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최근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일자를 정했다”며 “식장이나 제반 사항들은 김하늘과 예비 신랑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고민을 거듭하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분들의 축복과 사랑에 보답해 배우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스물셋 솔직한 이야기, 들어볼래요?

새 미니앨범 ‘챗셔’ 발표한

아이유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이라고 노래하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오빠를 찾지 않는다. “한 떨기 스물셋 좀 / 아가씨 태가 나네 / 다 큰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요”라고 어른스럽게 굴다가도 “얄미운 스물셋 / 아직 한참 멀었다 얘 / 덜 자란 척해도 / 대충 속아줘요”라며 말을 바꾼다. 20대 초반과 중반의 경계에서 겪게 된 고민과 생각들. 아이유(23)의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는 지금 아이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음반이다.

아이유를 만난 건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의 한 공연장에서였다. 앨범이 발매된 날 저녁, 아이유는 자신과 동갑내기 팬과 함께하는 특별한 쇼케이스 행사를 가졌다. ‘챗쇼(CHAT-SHOW)-한 떨기 스물셋’이라고 이름 붙은 이날 행사에서 아이유는 새 앨범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스물셋 청춘들의 고민을 같이 나눴다. 동갑내기가 모인 자리인 만큼 아이유는 친구를 대하듯 반말로 말을 걸었다. 팬도 아이유와 오래 알고 지낸 듯 반말로 답하며 정겨운 시간을 만들었다.

> 전곡 작사·프로듀싱 맡은 앨범
> 스물셋 고민과 갈등 그대로 담아
> 열애 언급도 쿨하게 답하는 솔직함
> 방송활동 대신 콘서트로 만나요 ”

이번 앨범은 아이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음반이다. 수록곡 7곡 모두 작사에 참여했으며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앨범 타이틀인 ‘챗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고양이 체셔 캣에서 빌려왔다. ‘잡담’이라는 뜻의 ‘챗’으로 철자를 바꿔 ‘잡담-주(州)’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이유는 “가사를 직접 쓰다 보니 이번 앨범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담은 곡들이기에 각각의 주제가 가볍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비춰지는 것은 싫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가치관이 아닌 그냥 잡설입니다’라는 뜻으로 ‘챗’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인 ‘스물셋’도 체셔 캣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제목 그대로 스물세 살 아이유가 겪는 고민을 담았다. 아이유는 스물세 살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마음을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순간만 있을 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 아니 아니 물기 있는 여자가 될래요 / 아 정했어요 난 죽은 듯이 살래요 / 아냐 다 뒤집어 볼래 / 맞혀봐”라는 가사에는 그런 아이유의 솔직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유의 솔직함은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서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화제가 된 장기하와의 열애 소식에 대해 ‘쿨’하게 답하는 모습이 그러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는 아이유의 말에 어느 팬이 장기하와의 열애 소식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아이유는 “알려진 대로 만난 지는 2년쯤 됐기에 (연애가) 나의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며 “새 앨범이 나온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웃었다.

아이유는 이번 앨범으로 방송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지 않다. 드라마 ‘프로듀사’와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 그리고 앨범 작업으로 바쁘게 지내온 지금 다음달에 열리는 콘서트에 쓸 체력만을 남겨놓고 싶다는 것, 그리고 힘들었지만 행복함으로 남은 이번 앨범의 기억을 무리한 활동으로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유마저도 솔직했다. 아이유의 진짜 매력이 여기에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로엔트리 제공


E channel ×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OX FX

새로 나온 책

그림은 위로다

홍익출판사/이소영 지음



흔히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은 잘 알아야만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그림 한 점이 어느 날 문득 말을 걸기도 하고, 누구나 알법한 흔한 그림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림은 위로다'의 작가 이소영은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어려운 이론도, 복잡한 미술사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고 활력이 솟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화가 가진 힘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뭉클한 위로, 혹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작가는 미술교육과 전시 해설, 명화 강의, 그림 이야기 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림을 알리고 있다. '아트메신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림으로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그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304쪽, 1만5800원.

/장병호기자 solanin@

기억·죽음·사랑… 노년의 애달픈 진혼곡

박범신 장편소설 '당신-꽃잎보다 붉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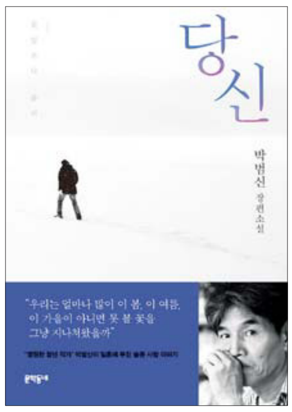
치매 걸린 노부부 사랑 이야기 박범신 문학앨범도 함께 출간

"여기, 내 관 속 같아요, 당신! 너무 추억이 많은 집인데.(……)" 가슴이 마구 무너진다. 당신, 이런 말이 왜 이리 슬플까. 함께 견뎌온 삶의 물집들이 세월과 함께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눈물겨운 낱말이다. 그늘과 양지, 한숨과 정염, 미움과 감미가 더께로 얽혀 곰삭으면 그렇다. 그것이 당신일 것이다. (본문 266~267쪽)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이 신작 장편소설 '당신-꽃잎보다 붉던'을 문학동네에서 펴냈다.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그가 이번에 파고든 주제는 노년, 기억, 죽음, 애도 그리고 사랑이다.

현재 시점에서 치매에 걸린 노부부 윤희옥과 주호백이 살아온 과거의 시공간을 종횡으로 오가며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끝을 맺고 만 '당신'의 사랑을 달래고 기리는 진혼곡으로 씌어졌다.



박범신은 주인공이지난 삶을 회고하듯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문학앨범 '작가 이름, 박범신'과 '박범신 중단편전집'(전7권)도 함께 펴냈다.

'작가이름, 박범신'은 작가의 제자이자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박상수가 엮었다. 박상수는 뜨거운 열정과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매번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걸작들을 선보였던 박범신 문학적 일평생을 묶어냈다.

1973년 중앙일보로 데뷔, 문단 나이로는 마흔 둘인 박범신은 이달 칠순을 맞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박범신은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눕다', '불의 나라'와 '물의 나라', '소금', '은교' 등 다수의 소설을 써 왔다.

그의 작품은 감성적 묘사 위주의 시적인 문제, 어두운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 대결, 비정한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비판 등이 특징적 요소로 꼽힌다.

박범신은 작가의 말을 대신한 헌사에서 '당신-꽃잎보다 붉던'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사랑에서, 주호백과 닮은 당신, 나는 그러나 정염과 슬픔 사이의 골짜기를 낮은 포복으로 갈팡질팡 여기까지 왔네. 사랑의 끝엔 무엇이 있는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야, 당연히 사랑이 있지!' 당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 내가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나는 이 소설의 작은 뼈 하나를 얻었다네. 사랑의 지속을 믿지 않는 남자 곁에서 그것의 영원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오랜 당신,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허락을 구하면서, 나이 일흔에 쓴 이 소설을 부끄럽지만 나의 '당신'에게 주느니, 부디 순하고 기쁘게 받아주길!"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아내 최현주와의 러브 스토리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새 신랑이 된 배우 안재욱이 게스트로 출연해 신혼부부로 구성된 MC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뮤지컬 연습으로 처음 만난 아내 최현주에 대해 "수줍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고 고백한다. 또한 3일 만에 아내에게 고백을 한 사연을 털어놓는다.

/정리=장병호기자

◆ tvN '풍선껌'

오후 11시

행아(정려원)는 라디오 생방송 도중 올라온 자살 사연을 수습하다 자신의 이별 사실을 고백한다. 리환(이동욱)은 자신에게 이별을 숨긴 행아에게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워한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발레리나 강수진과 전 농구선수 서장훈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홍석천과 오세득 셰프는 강수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화끈한 매운 요리 대결을 펼친다.



◆ MBC '화려한 유혹'

오후 10시

은수(최강희)는 부상당한 형우(주상욱)를 집으로 데려온다. 형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되며 그걸 말하는 순간 자신은 죽는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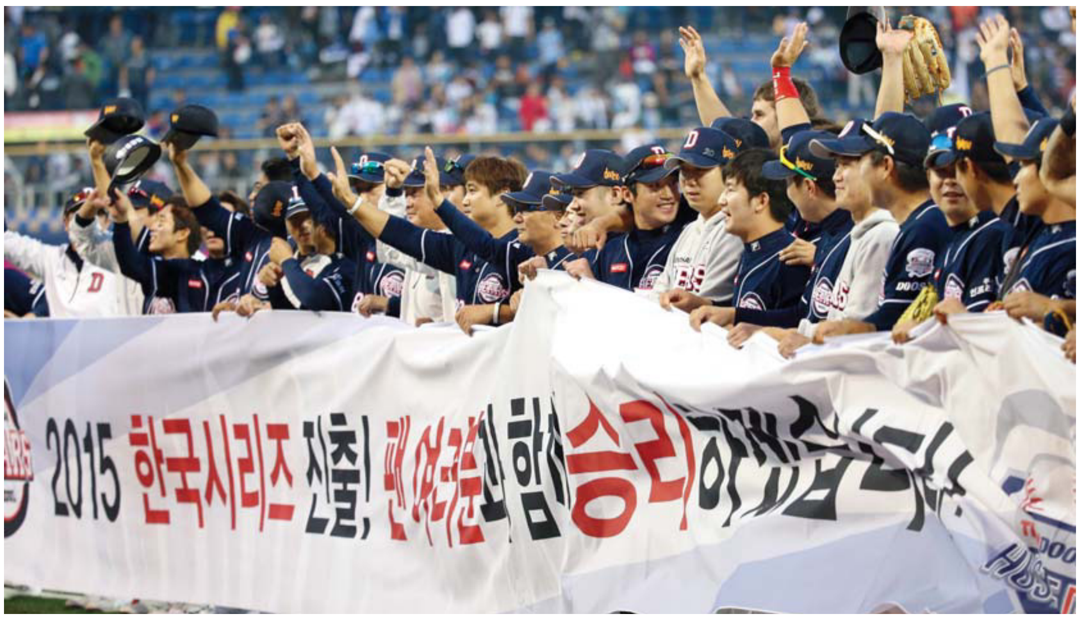
26일(월)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안녕 우리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7:30 모닝와이드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 (재) 09:45 히든싱어 4	06:00 명단공개 (재) 06:40 응답하라 1997 (재) 10: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6:30 모비딕 08:30 CSI 시즌5 (재) 10:30 CSI 마이애미 시즌4 (재) 11:30 CSI 시즌14 (재)	05:20 겟어웨이 06:50 스텝 업 2:더 스트리트 08:40 주말 N 영화 10:00 세이프 헤이븐
12:00 특집 KBS 뉴스 12 13:20 행복한 지도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5:55 오늘의 경제 16:05 방송의 날 특집 UHD 시대가 열린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생방송 투데이	12:05 송곳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40 집밥 백선생 (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30 베스트 오퍼 15:00 플라이트플랜 16:50 월드 워 Z 17:20 더블 타겟(2007)	12:20 건축학개론 14:40 킹스스피치 17:00 7번방의 선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3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글로벌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MBC 다큐스페셜 24:10 MBC 뉴스 24 24: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45 스포츠 특선	18:20 201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삼성, 대구생중계 / (2안) 22:00 SBS 8 뉴스 22:30 육룡이 나르샤 23:45 힐링캠프 500인	18:30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풍선껌 24:20 명단공개 (재)	21:40 본 레거시 24:20 감시자들	19:30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22:00 제보자 24:20 셔터 아일랜드

사기 오른 두산… 도박악재 삼성… 승패는?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재격돌
오늘 대구구장서 1차전 돌입

윤성환·안지만·임창용 등
삼성 '도박투수' 제외 변수



두산 베어스가 24일 오후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NC 다이노스와의 5차전에서 승리하고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두산은 삼성 라이온즈와 오늘부터 한국시리즈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가 NC 다이노스를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7전4승제)에 진출했다. 2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와 재격돌한다.

삼성과 두산은 오후 6시30분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1차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한국시리즈에 돌입한다.

삼성은 5년 연속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통합우승 5연패라는 신기록에 도전한다.

그동안 삼성은 한국시리즈에서 7차례 우승했다. 한국시리즈 없이 전·후기 통합 우승을 차지한 1985년까지 포함하면 총 8번이나 한국 프로야구 정상에 올랐다.

올해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한 두산은 넥센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3승 1패), NC 다이노스와 플레이오프(3승 2패)를 거쳐 삼성과 대결하게 됐다. 2001년 이후 14년 만이자 전신 OB 시절을 포함해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린다.

삼성과 두산이 한국시리즈에서 만난 것은 2013년 이후 2년 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다. 지난 4차례 대결에서 두 팀은 각각 두 차례씩 우승을 나눠 가졌다.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2013년은 양 팀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당시 정규시즌을 4위로 마친 두산은 넥센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3승 1패로 따돌리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두산은 대구 원정에서 먼저 2승을 챙긴 뒤 잠실로 옮겨 3차전을 2-3으로 내줬다. 그러나 4차전을 2-1로 이기며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 놓았다. 하지만 이후 잠실 5차전과 대구 6~7차전에서 허무하게 3연패를 당해 삼성의 통합우승 3연패를 지켜봐야 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삼성이 두산에 11승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팀간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팀타율 0.326, 평균자책점 4.63을 기록해 두산(타율 0.278, 평균자책점 7.58)에 투·타에서 모두 앞섰다. 다만 삼성이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주축 투수 임창용·안지만·윤성환을 엔트리에서 뺀 것이 이번 한국시리즈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두산의 사기가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가 완벽하게 부활해 한국시리즈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삼성과 달리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치른 만큼 체력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두산의 관건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기성용 '풀타임' 활약… 스완지시티 역전승

6경기 만에 2-1로 10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열린 2015-2016 ELP 10라운드 애스턴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공을 몰고 있다. /AP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가 애스턴빌라에 역전승을 거뒀다. 기성용은 풀타임 활약으로 스완지시티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스완지시티는 2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EPL 10라운드 애스턴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안드레 아이유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스완지시티는 3승 4무3패(승점 13)를 기록했다. 6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며 10위로 뛰어올랐다. 애스턴빌라는 6연패에 빠졌다.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스완지시티(리그 14위)는 전반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애스턴빌라(리그 19위)의 강한 압박에 밀렸지만 이를 잘 막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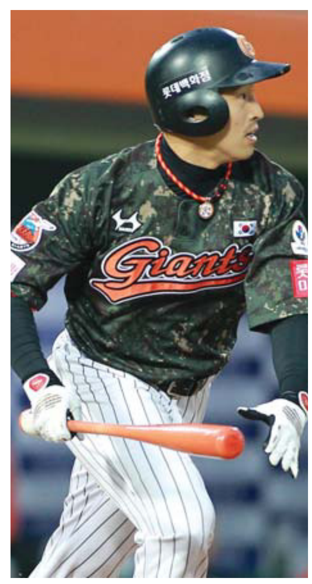
후반에는 애스턴빌라의 공세에 밀렸다. 후반 17분 애스턴빌라에 역습을 당하며 가브리엘 아그본라허의 크로스에 이은 조던 아이유의 헤딩슛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6분 뒤 애스턴빌라 페널티박스 밖에서 얻은 프리킥을 시구르드손이 오른발 프리킥을 골로 연결하며 경기를 1-1로 만들었다.

이어 후반 41분 스완지시티 카일 노턴이 애스턴빌라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골문 정면으로 크로스한 골을 아이유가 쇄도하며 왼발로 역전골을 뽑아냈다.

한편 이청용이 결장한 크리스털 팰리스는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4분에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장병호 기자

롯데, 손아섭 메이저리그 포스팅 허가

실패시 황재균에게 기회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 /연합뉴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27)이 황재균(28)보다 먼저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참가하게 됐다고 롯데 구단이 25일 밝혔다.

롯데는 "황재균과 손아섭의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진출 요청에 대해 양 선수의 강한 도전의지와 목표의식을 높이 평가했다"며 "KBO 규약에 따라 1명의 포스팅 참가 선수를 선정하기 위해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양 선수 모두 포스팅 참가에 대한 자격을 가진 선수지만 최근 5년 동안 개인 성적, 팀 기여도의 척도인 연봉, KBO 기구의 대표팀 발탁 횟수, 언론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골든글러브 수상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아섭의 포스팅 참가를 심사숙고 끝에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두 선수의 최근 5년 동안의 타격 성적을 평균해서 비교하면 손아섭이 타율 0.333에 158안타, 12홈런, 69타점 16도루로 황재균(타율 0.289, 36안타, 12홈런, 70타점, 18도루)을 앞선다.

올해 연봉에서도 손아섭이 5억원으로 황재균의 3억 1000만원보다 높다. 대표팀 발탁 횟수도 손아섭이 3회로 2회인 황재균보다 우위다. 손아섭은 골든글러브 4회 연속 수상자인 반면 황재균은 아직 수상 기록이 없다.

롯데 측은 손아섭의 포스팅 실패 시 곧바로 황재균에게 포스팅 참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단은 한국시리즈 종료 후 KBO에 손아섭의 포스팅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캔자스시티,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캔자스시티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의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6차전 홈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7전 4승제의 시리즈에서 전적 4승 2패를 기록해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오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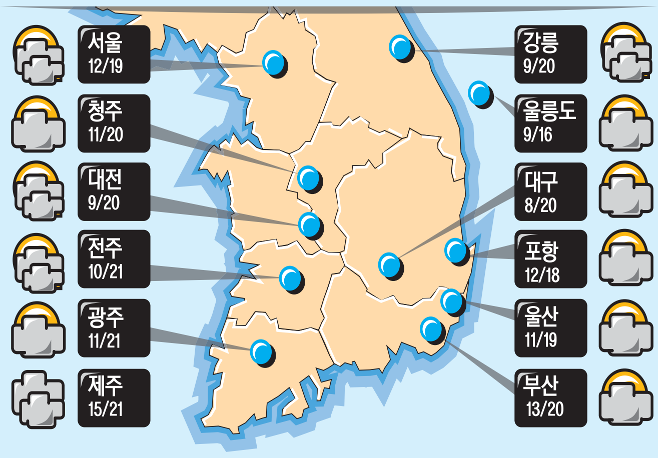
캔자스시티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를 4승 무패로 통과한 뉴욕 메츠와 28일부터 7전 4승제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한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26 월 일출시각 06:50 일몰시각 17:4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6			7	9		
2		1		6			4	5
		7						1
	5	2	6		1	4	3	
3						6		
1	2			9		3		6
		5	8			2		
		8						4

		5	4					
			3				4	1
	4	3	7			6	5	2
5					3		9	
			5		6			
	7		2					3
7	5	8			1	3	6	
2	6				7			
					5	2		

스도쿠 정답

7	4	3	1	5	9	8	6	2
5	8	6	4	2	7	9	1	3
2	9	1	3	6	8	7	4	5
4	6	7	9	8	3	5	2	1
8	5	2	6	7	1	4	3	9
3	1	9	5	4	2	6	7	8
1	2	4	7	9	5	3	8	6
6	3	5	8	1	4	2	9	7
9	7	8	2	3	6	1	5	4

8	1	5	4	6	2	7	3	9
6	2	7	3	5	9	8	4	1
9	4	3	7	1	8	6	5	2
5	8	2	1	7	3	4	9	6
4	3	9	5	8	6	1	2	7
1	7	6	2	9	4	5	8	3
7	5	8	9	2	1	3	6	4
2	6	4	8	3	7	9	1	5
3	9	1	6	4	5	2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룽고 지음)

생활 영어

We presented successfully

A: Wow, the conference was excellent!

B: We presented successfully.

A: You prepared very well.

B: No, it's not just my work. All our team me mbers worked diligently.

A: I sincerely respect your hard work.

B: Oh, I'm flattered.

A: You deserve it.

우리의 발표가 성공했네요

A: 와, 회의가 훌륭했네!

B: 우리의 발표가 성공했네요.

A: 자네가 아주 잘 준비했더군.

B: 아니요, 그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죠. 우리 팀원 모두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A: 자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네.

B: 아, 과찬의 말씀입니다.

A: 자네는 칭찬받을 만해.

문법Point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부사는 대부분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 만든다.

ex) The train stopped suddenly. 기차가 갑자기 멈추었다.
es) I opened the door slowly. 나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ex) Suddenly, the shelf fell down. 갑자기 선반이 떨어졌다.

Words

excellent 훌륭한, 탁월한
sincerely 진심으로
prepare 준비하다
deserve ~을 받을 만하다
diligently 부지런히

* I'm flattered : 과찬의 말씀입니다
– flatter는 '아첨하다, 기분좋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be flattered는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다는 의미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일은 힘들어 고민입니다 운동으로 신체 단련하고 자기계발 하세요

샤신 여자 87년 6월 13일 21시 45분

Q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언제쯤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을지 만약에 독신으로 산다면 말년 운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커서 줄곧 이직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이직할 생각인데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계속 머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여자 87년 6월 13일 21시 45분 생으로 내년이면 30살이 되어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A 귀하는 계수(癸水)사주가 6월에 태어났으므로 착하고 성실함은 있으나 '물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며 밤이 낮을 만난 격이고 겨울이 여름을 본 것과 같아 체력이나 정신의 기운이 절(絶)의 하향 길로 가는 추세라 이성·직장으로 인한 고민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직보다는 운동으로 신체를 튼튼히 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계발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세요.

옛말에 '사주를 알고 나면 겸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모를 때는 초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하지만 알고 나면 그것이 모두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른 것으로 알게 되어 안정돼집니다. 사주팔자는 인생 삶의 지도(map)이니 취미로라도 사주 학 공부를 해보십시오. 스트레스나 조급함도 멀어지게 될 것이고 좋은 점은 장려하고 나쁜 것은 피하게 됩니다.

결혼도 문제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 하실 것은 충살(沖殺: 충돌)을 맞아 신념과 현실이 어긋나 막힘이 발생하고 매사가 지연 정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운명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서 운명이란 운(運)만이 아니라 명(命)도 함께 말합니다. 운이란 시운(時運)즉 문자 그대로 그 때의 운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이처럼 운은 공평합니다. 주어진 시대의 전개 양상은 모두에게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성격이나 자질과 타고난 머리와 감각, 그릇의 크기 등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명(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잘 버는 것도 명에 달렸으며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역시 시대에 부합하는 운이 뒤따라야 하며 부를 거머쥘 수 있고 사람을 잘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6일 (음 9월 1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0년생**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72년생** 귀인은 동쪽에 있습니다. **84년생**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 **49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61년생**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73년생** 지병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85년생** 스스로 일을 처리해도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62년생** 각별한 주위가 요구됩니다. **74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86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외출을 삼가세요. **63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75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합니다. **87년생** 이직운이 없으니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용 **52년생** 재정문제가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4년생** 좋은 결심이 있으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76년생** 사소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88년생** 윗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뱀 **53년생** 주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65년생** 여행은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7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9년생**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집에 있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66년생**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불편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90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양 **55년생**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67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9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68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8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칩니다.

닭 **57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81년생** 꿈 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93년생** 사랑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옵니다.

개 **58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82년생** 마음을 여니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94년생** 모든 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돼지 **59년생**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83년생** 사원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95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한 하루입니다.

돌출입 치료, 환자 특성 고려해야



송정우 원장의 건강 칼럼

스트레스로 인해 돌출입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위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콤플렉스로 여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돌출입을 수술이나 치아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치료를 받은 후의 모습이 어떨지 몰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아교정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치료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고 알려지면서 치아교정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을 인터넷에 있는 치료 후기나 기사들을 찾아보며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돌출입 치료는 가벼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돌출입은 코와 턱을 연결하는 선인 E-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술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돌출입은 치아만 튀어나온 일반 돌출입 외에도 무턱형, 주걱턱형 처럼 심한 골격성 돌출입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치아교정 방법도 달리해야 치료효과가 좋다. 치아만 튀어나온 경우는 일반치아교정장치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윗턱뼈부터 튀어나온 돌출입이나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반한 돌출입은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돌출입 증상이나 치아배열 상태 등에 따라 치료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치아교정장치가 바로 '킬본(KILBON)'이다.

킬본은 3D CAD/CAM 시스템을 통해 100% 환자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일반치아교정장치에 없는 강한 힘이 있어 골격성 돌출입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킬본은 불필요한 치아이동을 줄이고, 강한 힘으로 치아를 교정하기 때문에 윗턱뼈까지 동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일반교정장치보다 굵은 0.9㎜ 와이어를 사용해 치아이동 시 와이어가 휘거나 이로 인해 치아가 흐트러질 염려가 없다.

킬본은 설측교정을 사용하는데 이는 심미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치아 이동에 필요한 강력한 힘을 위해 입천장에 3개의 스크류(고정장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입 안쪽에 교정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뼈에도 힘을 가하기 위해 6개의 앞니를 한 그룹으로 양쪽 3개의 어금니를 각각 한 그룹씩 총 3개 그룹으로 연결한 후 와이어로 당겨 윗턱뼈와 아래턱뼈의 재배열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먼저 튀어나온 입을 원래대로 만든 뒤, 치열을 교정하는 이른바 '선돌출입치료'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일반적인 치아교정은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아교정을 해야 돌출입이 해소되기 때문에 치료의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킬본은 돌출입을 먼저 해결하고 치열을 바로잡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돌출입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구강구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비용만 따져서 병원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과 맞는 치료를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환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트럴치과 울시청점 원장

社說

여야는 쉬지 말고 대화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5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여야가 제 갈길로 가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로는 안되겠다며 국정화를 해야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국정화 불가론으로 맞섰다. 이미 예상되기는 했지만, 양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맞선 채 허무하게 끝난 것이다. 결국 청와대 회동은 여야 간의 입장을 수렴하는데 실패하고 도리어 간극만을 넓혔다.

이 때문에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야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하기 시작한데 이어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할 태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직접 '대국민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맞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서명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여야의 '3+3 회동'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이럴 때 여야는 좀더 냉정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면으로 대립하는 현안일수록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조율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쉬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 3+3 회동도 예정대로 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이 원내대표가 과거 SNS를 통해 자신에게 했던 무례한 언사를 상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과를 유도했고, 이 원내대표도 주저없이 사과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남아 있던 앙금도 말끔히 씻어냈다. 바로 이런 것이 대화의 힘 아닌가.

교과서 논란 무신불립



기자 수첩

연 미 란 <정경사회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여론 수렴 없는 마이웨이(My way)가 재현된 탓이다. 발단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내달 2일 고시가 확정돼야 최종 결정이 나지만 집필은 일사천리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3년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정 전환을 예고했다. 당시는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불거져 출판사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에 불과했다. 교과서 수정 명령이 국정 전환을 위한 정부의 밑작업이라는 일각의 얘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당시 여론수렴을 거치려고 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국정 전환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 또한 없었다. 사학계를 중심으로 집필 거부가 이어지는 까닭이다.

게다가 정부는 범야당의 반대 기류가 거세지자 지난 13일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을 비공개 의결, 국사편찬위에 내려 보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정화 추진에 대해 일관되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이들 또한 동일한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추진을 위한 그럴듯한 포장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가 유효하다면 '믿음 없이는 국가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되새겨 봐야한다. 알고도 외면하면 위선이라 '위험'하고, 모르고 외면하면 무지해서 '위험'하다.

/연미란 기자

'육우'는 '젖소'가 아닙니다

소비자 119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육우를 젖소로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육우는 젖소가 아니다.

젖소는 얼룩소인 홀스타인종 중 원유(源乳)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의미한다. 육우 역시 같은 홀스타인종이지만 원유의 생산이 아니라 육류생산을 목적으로 키우기때문에 '육우=젖소'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육우는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암송아지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경우 일부 암송아지도 육우로 키워진다. 결국 젖소와 육우는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워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한우와 다른 생김새때문에 육우를 수입산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육우는 한우와 종이 다를 뿐 국내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수입산이 아니다. 육우는 국내에서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얼룩소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실제로 육우는 국내산으로 수입 소고기와는 차별화된다. 육우는 우리 땅에서 태어나 우리 농가가 키운 국내산 전문고기소로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육우와 젖소는 같은 홀스타인 종이지만 육우와 젖소고기는 차이가 있다. 젖소고기가 원유를 생산하던 소를 도축한 것으로 키워질 때부터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육우와는 다르다.

젖소고기라는 오해는 육우가 일반적인 소고기보다 질기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젖을 짤 수 없는 늙은 홀스타인 암소 고기는 질길 수 있지만 육우는 전문 비육 시스템으로 한우보다 성장이 빨라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다. 육우를 냉동육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많다.

장거리, 장시간을 이동해온 수입육은 대부분 냉동상태로 들여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맛과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육우는 도축 즉시 냉장 유통돼 신선함을 유지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실장 김종현 △편집국 ▷국제에디터 김홍태 ▷외국어에디터 황두형 ▷경기취재본부장 이기창 ▷광주.전남취재본부장 김장국 ▷전북취재본부장 김종량 ▷통일외교부장 정재용 ▷미디어여론독자부장 임상수 ▷IT의료과학부장 김대호 ▷스포츠부장 천병혁 ▷사진부장 도광환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국장 문병훈 △정보사업국 ▷정보사업국장 김경석

◇매경미디어그룹 △매일방송(MBN) ▷사장 장승준 △매일경제<승진> ▷편집담당임원 겸 논설주간 박재현(전무이사) ▷논설실장(이사) 전병준 ▷총무국장(이사대우) 전한우 ▷공무국장(이사대우) 임득호 ▷편집국 국차장 겸 레이더 총괄 서양원 ▷논설실 논설위원(부국장대우) 윤경호 ▷광고국 광고관리팀장(부국장대우) 김한종 ▷편집국 경제부장직대 이진우 ▷편집국 국제부장직대 박봉권 ▷편집국 영문뉴스부장직대 정혁훈 ▷편집국 모바일부장직대 최용성 ▷편집국 과기부장직대 임상균 ▷경제경영연구소장 김경도 ▷편집국 중기부장직대 김대영 ▷시설관리국 부장대우 송명섭 △<전보> ▷매경BIZ 대표 윤형식 ▷매경닷컴 대표 겸 프리미엄부장 진성기 ▷매경그룹 홍보실장직대 송정우 ▷편집국 벤처지원부장 유진평 ▷편집국 산업부장 위정환 ▷편집국 지식부장 김정욱 ▷편집국 증권부장 설진훈 ▷ 편집국 교열부장직대 황인석 ▷편집국 유통부장직대 김주영 ▷편집국 기획특집부장직대 김웅철 ▷편집국 오피니언부장직대 이은아 ▷논설위원 이창훈 ▷논설위원 장박원 ▷중부본부장 겸 취재부장 현문학 ▷영남본부장 겸 취재부장 배한철 △매일방송(MBN)<승진> ▷편성본부장 겸 기획실장(전무이사) 류호길 ▷매일경제TV 공동대표 서정희 ▷기술국장직대(부국장대우) 장용수 ▷사회1부장(부국장대우) 박진성